

Volume 18 · Winter · 2024

Poetry Korea

Semiannual Anthology by **96** Poets of Korea
Edited by UPLI Korea Center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Korea Center



국제PEN한국본부

창립70주년기념 시인선 21

한 스무날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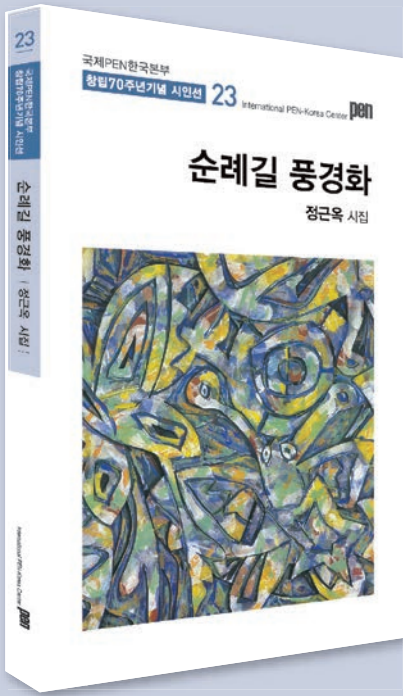
신경희 시집

신경희 시인은 매우 아름다운 은유의 시적 상상력과 섬세하고 예리한 감성과 적절하게 세련된 시어의 선택으로 감동을 극대화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더 있다. 다른 시에서도 나타나지만 고달프고 외로운 홀로서기 오독이들이 흘러서 서로 만나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고 그리움이 되고 있다는 발상과 그 주제의 철학적 가치가 그렇다. 샘물처럼 혼자서 외롭게 흐르던 홀로서기 인생들이 서로 만나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된다는 것은 감동적인 철학적 사고다. 그래야만 이 세상의 구원이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홀로서기의 고독한 존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세계이며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있고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절규다. - 김우중 (문학평론가)



신경희

시인, 문학박사. <서정문학>(2009)으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문인권익옹호위원회 위원, 한사랑예술협회 영상분과 위원장, 대전펜문학운영위원, 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 (UPLI) 사무국장, 국제PEN한국본부, 창작산맥 회원, 대전문인총연합회, 무천문화회 회원, 충무공이순신기념사업회 총무국장,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무국장, 한국국학진흥원 근대기록문화 조사원. 시집 :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한 스무날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국제PEN한국본부

창립70주년기념 시인선 23

순례길 풍경화

정근옥 시집

평소에도 정근옥 시인을 대하면 올곧은 선비이자 지사(志士)의 풍모를 느끼곤 했는데, 그의 이번 시집을 보니 더욱 그러하다. 이 시집은 그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이 쓴 내 나는 갈등을 일으킬수록 '무극(無極)의 순수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때, 그의 시 쓰기는 잠들어 있는 시를 두드려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이자 스스로를 연마하는 고투(苦鬪)의 기록이며, 하늘길 따라 움직여가는 별들의 삶에서 '우주의 섭리'를 터득해 가는 과정이다.

이런 풍경들을 가슴에 아로새긴 그는 수도승과 같은 한 그루의 나무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 시집은 이와 같은 나무들이 이룩해낸 격조 높은 서정의 풍경화이다.

— 오정국 (시인, 문학박사, 한서대 명예교수)



정근옥

시인, 문학비평가, 문학박사. 중앙대학교 학부·대학원(문예창작, 국어교육) 졸업. '한국시'·'교육신보' 등단 시작활동, 국제PEN한국본부 감사, 한국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원, 중앙대문인회 부회장, 한국비평가협회 이사, 대한교육신문 논설위원, 월간 '시' 편집고문. 한국현대시인상, 신문예문학상 대상의 수상. 시집 「거울 속의 숲」, 「순례길 풍경화」 외, 평론집 「조지훈시 연구」 외, 산문집 「행복의 출발에서 별을 가꾸다」 외

Poetry Korea 17호 발간 | 자축연

8월 28일(수요일) 12시
대전광역시 선화동 대림호텔



UPLI-KC 회원 단체 사진



최승석 시인 축사



이정희 교수



김용옥 시인



정근옥 시인 시낭송

UPLI-KC | 문학기행

10월 25일(목) ~ 10월 26일(금) / 1박 2일간
군립청송야송미술관 / 객주문학관 / 주산지 탐방



군립청송야송미술관



객주문학관

국제PEN한국본부 | 제10회 한글작가대회

2024년 10월 29일(화) ~ 11월 1일(금) / 3박 4일간
연세대학교 백양로플라자 그랜드볼룸 / 여의도 컨싱턴 호텔 /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주최 : 국제pen한국본부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심상옥 부이사장과 대전화원



김경식 사무총장, 이애정 사무국장과 UPLI-KC 전 민 이사장, 신경희 사무국장

Volume 18 · Winter · 2024

Poetry Korea

Semiannual Anthology by **96** Poets of Korea
Edited by UPLI Korea Center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Korea Center

Copyright 2024 by UPLI Korea Center

All right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editors, except by reviewers who may quote brief passages to be printed in a magazine or a newspaper.

Published by Orum Pub. Co.

125, Daejeon-ro 815beon-gil, Dong-gu, Daejeon, Republic of Korea

phone. +82-42-637-1486

e-mail, orumplus@hanmail.net

발간사

최고의 한글시, 최선의 영역시

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
이사장 전 민 (전병기)



계관시인은 17세기 영국에서 시적 우수성을 위해 처음 수여된 칭호이었고 미국에서도 초기 그리스와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인들의 후원자인 아폴로(Apollo)에게 신성한 나무인 월계수 왕관으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1936년부터 호칭되어 왔습니다. UPLI, 국제계관시인연합은 1963 Amado M Yuzon 박사(필리핀)에 의하여 창립되었고 현재 본부는 미국 Santa Rosa, California에 있습니다. UPLI는 “시의 교류와 육성을 통해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는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1966년 가을, UPLI의 공식 기관지인 월계수 잎사귀(Laurel Leaves)의 창간호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 (East Meets West)’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되었습니다.

UPLI는 전 세계 30여개국과 연합본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UPLI-KC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Korea Center)라는 지부가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계관시인연합 한국본부는 고 문덕수 시인과 고 김용재 시인 재임시에 국내에서 발표된 좋은 시들을 영역하여 ‘Poetry



Korea'에 수록, 국내, 해외에 소개하여 왔습니다. 『Poetry Korea』는 이제 18집을 발간하였습니다.

UPLI-KC의 목표는 최고의 한글시를 최선의 영역시로 탈바꿈하여 국내, 외에 소개, 홍보, 보급하는 일입니다. 이번 18호에서는 해외문학 교류 특집으로 베트남작가협회의 유명 시인 6분의 시를 소개합니다 회원 여러분도 『Poetry Korea』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Publishing Announcement

Great Hangeul Poems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Best Effort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Korea Center
Chairman Jeon Min (Jeon Byung-ki)

The term “Poet Laureate” originated from a tradition, dating to the earliest Greek and Roman times, of honoring achievement with a crown of laurel, a tree sacred to Apollo, patron of poets. In England the title has been used since 17th century, referring to the eminent poets appointed for life as the member of Britain royal household. In America, Consultant in Poetry to the Library of Congress had been used since 1936, and it changed to the official title “Poet Laureate Consultant in Poetry” in 1985 and has been used ever since.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UPLI) was established by Amado M Yuzon in 1963 and its headquarter is located in Santa Rosa, California, USA, with the motto, “Exchanging poems and promoting the relationship and brotherhood” through poetry. The first issue of the official magazine published by UPLI, *Laurel Leaves* was published in 1966 with the title “East Meets West.”

Currently, UPLI has 30 branch centers all over the world.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Korea Center(UPLI-KC)



is one of those branch establishments, and we are actively engaging in communicating with poets and readers through *Poetry Korea*, the magazine we publish. UPLI-KC had published the anthology of Korean/English poems submitted by great Korean poet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late Mun Duk-soo and the late Kim Yong-jae and keep introducing great poems to the readers domestic and foreign under the leadership of new chairman Jeon Min. And now we are very pleased to let you know that we have published the 18th volume.

The purpose of UPLI-KC is to publish great Korean poems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best effort and introduce them to the readers domestic and foreign. For the publication of the 18th volume we have prepared a special section to improve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literature and friendship, presenting the special invited poems of 6 Vietnamese poets. I hope you as the members of UPLI-KC feel proud of yourselves with your poems included in *Poetry Korea* and I'd like to thank all of you for your help and further encouragement.

차례 contents

008 · 발간사 - 전 민 (전병기)

최고의 한글시, 최선의 영역시

010 · **Publishing Announcement** - Jeon Min (Jeon Byung-ki)

Great Hangeul Poems Translated into English with the Best Effort

베트남 작가협회 시인 초대시

The Invited Poems of Six Vietnamese Poets

027 · 찌누안민 Tran Nhuan Minh

혼자 가고 있나요? | GO ALONE? | SAO EM ĐI MỘT MÌNH

031 · 찌당코아 Tran Dang Khoa

사해 바다 | DEAD SEA | BIỂN CHẾT

035 · 키유빅하우 Kieu Bich Hau

정화淨化 | PURIFICATION | THANH LỘC

039 · 팜반안 Tác giả Phạm Vân Anh

의문점들 | QUESTIONS | NHỮNG DẤU HỎI

046 · 땡트엉 Nhà thơ ĐINH THƯỜNG

사랑시장에서 즉흥 | NGẪU HỨNG CHỢ TÌNH

049 · 찌티르우리 Trần Thị Lưu Ly

햇살이 부르는 이름 | CHO NẮNG GỌI TÊN

Semiannual Anthology by 96 Poets of Korea

- Edited by UPLI Korea Center -

052 · 가을의 꽃 | 홍중기

053 · Autumn Flower | Hong Joong-gi | Trans. Jung Mi-seon

054 · 먹물꽃 | 홍재인

055 · Ink Flower | Hong Jae-in | Trans. Woo Hyeong-sook

056 · 겨울잠 | 홍윤표

057 · Hibernation | Hong Yoon-pyo | Trans. Kim Sok-hun

058 · 나무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 홍명희

059 · Lips of a Tree Started to Move | Hong Myung-hee | Trans. Kim In-young

060 · 마지막 흘린 눈물 | 허진숙

061 · Last Tear | Heo Jin-sook | Trans. Jung Mi-seon

062 · 단풍에 숨어서 | 허만길

063 · Hiding in Tinged Leaves of Autumn | Hur Man-gil | Trans. Kim In-young

064 · 쭈부쟁이 | 한문석

065 · Asters | Han Moon-seok | Trans. Kim In-young

066 · 커피의 길 | 하희경

067 · The Way of Coffee | Ha Hee-kyung | Trans. Woo Hyeong-sook

068 · 서로西路 | 하미숙

069 · A Westbound Road | Ha Mi-sook | Trans. Kim In-young

070 · 기억 | 최창일

071 · Memories | Choi Chang-il | Trans. Kim In-young

072 · 소금꽃 | 최재문

073 · The Flowers of Salt | Choi Jae-moon | Trans. Kim In-young

차례 contents

- 074 · 갈대를 위하여 | 최원규
075 · For a Reed | Choi Won-kyu | Trans. Cho Mi-na
076 · 싸리꽃 | 최송석
077 · Blossom of Bush Clover | Choi Song-seok | Trans. Cho Mi-na
078 · 꽃보다 눈부신 사람 | 차옥혜
079 · Someone more Beautiful than a Flower
 | Cha Ok-hye | Trans. Jung Mi-seon
080 · 일몰 후 | 진형곤
081 · After Sunset | Chin Hyung-gon | Trans. Kim Sok-hun
082 · 바람, 불다 | 진명희
083 · The Wind Blows | Jin Myung-hee | Trans. Woo Hyeong-sook
084 · 두 도시 이야기 | 지은경
085 · A Story of Two Cities | Jee Eun-kyung | Trans. Kim In-young
086 · 돌단풍 | 조혜자
087 · Mukdenia Rossii | Cho Hye-ja | Trans. Jung Mi-seon
088 · 응시 | 조미나
089 · Staring | Cho Mi-na | Trans. The Author
090 · 미안합니다 | 조남명
091 · I'm Sorry | Cho Nam-myeong | Trans. Kim Sok-hun
092 · 하지만 | 조규수
093 · But | Cho Kyu-soo | Trans. Woo Hyeong-sook
094 · 행복의 공식 | 정연덕
095 · A Formula for Happiness | Chung Yeon-deok | Trans. Kim Sok-hun
096 · 늦가을 바람이 분다 | 정근옥
097 · The Wind of Late Autumn Blows | Jung Keun-ok | Trans. Kim In-young

- 098 · 나뭇가지 끝에 걸린 하늘 | 전홍구
- 099 · The Sky Hanging on the End of a Twig
| Jeon Hong-gu | Trans. The Author
- 100 · 동백이 | 전영귀
- 101 · Miss Camellia | Jeon Yeong-gui | Trans. The Author
- 102 · 인생 통장 | 전 민
- 103 · A Life Passbook | Jeon Min | Trans. Cho Mi-na
- 104 · 선풍기 | 장현선
- 105 · Electric Fan | Jang Hyeon-seon | Trans. Jung Mi-seon
- 106 · 그곳에 가면 | 장정순
- 108 · If I Get There | Chang Jeong-soon | Trans. Kim Sok-hun
- 110 · 칠월 보름밤 | 장건섭
- 111 · The 15th Night of July in Lunar Calendar
| Jang Gun-seop | Trans. Kim In-young
- 112 · 이루어리라 | 임형선
- 113 · I'll Make It Come True | Lim Hyung-seon | Trans. Woo Hyeong-sook
- 114 · 당신이 다녀가고 | 이희국
- 115 · After you come and go | LEE Hee-kuk | Trans. The Author
- 116 · 바람의 길 | 이현서
- 117 · A Path of the Wind | Lee Hyeon-seo | Trans. Kim In-young
- 118 · 경물 景物 | 이정자
- 119 · Landscape | Lee Jeong-ja | Trans. The Author
- 120 · 화단의 꽃 | 이일청
- 121 · Flowers in the Flowerbed | Lee Il-cheong | Trans. Jung Mi-seon

차례 contents

- 122 · 세월의 힘 | 이영숙
- 123 · The Power of Time | Lee Young-sook | Trans. Jung Mi-seon
- 124 · 낙원 | 이복자
- 125 · Paradise | Lee Bok-ja | Trans. Kim Sok-hun
- 126 · 홍매화 | 이돈배
- 127 · Red Plum Blossoms | Lee Don-bae | Trans. Woo Hyeong-sook
- 128 · 산티아고 순례 | 윤유점
- 129 · Pilgrimage to Santiago | Yoon Yoo-jeom | Trans. Woo Hyeong-sook
- 130 · 짝사랑 회억 | 윤기관
- 131 · Memories of Unrequited Love | Yun Ki-kwan | Trans. Kim In-young
- 132 · 별 | 유재봉
- 133 · A Star | Yoo Jae-bong | Trans. Kim In-young
- 134 · 서봉총瑞鳳冢 금관 | 오현정
- 136 · The Gold Crown from Seobongchong Tomb
| Oh Hyun-jung | Trans. Kim In-young
- 138 · 상실의 시대 · 7 | 오종민
- 139 · Age of Loss · 7 | Oh Jong-min | Trans. The Author
- 140 · 인생사 새옹지마 | 오광자
- 141 · What's Evil in Life Can Turn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 Oh Kwang-ja | Trans. Kim In-young
- 142 · 꽃피는 서랍 | 연명지
- 143 · A Drawer that Flowers Are Blooming From
| Yeon Myung-ji | Trans. Kim In-young
- 144 · 버클리 늦가을 | 양왕용
- 145 · Late Autumn at Berkeley | Yang Wang-yong | Trans. Kim In-young

- 146 · 구름 조각배 있다면 | 양영숙
147 · If Only I Had a Small Cloud Boat
 | Yang Young-sook | Trans. Jung Mi-seon
148 · 어뜨케 헤어져요 | 안혜초
150 · How Can I Part Again to Live Apart from You?
 | Ahn Hye-cho | Trans. Kim In-young
152 · 손맛 | 안시찬
153 · Handmade | Ahn Si-chan | Trans. Kim Sok-hun
154 · 새로운 길 | 심상옥
156 · A New Path | Shim Sang-ok | Trans. Kim In-young
158 · 로렐라이 언덕에서 | 신영옥
159 · On the Hill of Lorelei | Shin Young-ok | Trans. Kim In-young
160 · 폭설 | 신경희
161 · Heavy Snow | Shin Kyung-hee | Trans. Woo Hyeong-sook
162 · 먹단감 | 손수여
163 · Sweet Persimmon | Son Soo-yeo | Trans. Jung Mi-seon
164 · 덮는 | 성숙옥
165 · Covering | Seong Sook-ok | Trans. Kim Sok-hun
166 · 거울 앞에서 | 석미애
167 · In Front of the Mirror | Seok Mi-ae | Trans. Kim In-young
168 · 휘바람 소리 | 서근희
169 · Whiffle | Seo Geun-hee | Trans. Jung Mi-seon
170 · 내 안의 꽃 | 사위환
171 · The Flower Inside Me
 | Sa Wee-hwan | Trans. Woo Hyeong-sook

차례 contents

- 172 · 달맞이꽃 | 변희자
- 173 · Evening Primrose | Byun Hee-ja | Trans. Kim In-young
- 174 · 모였다 | 백혜옥
- 175 · We Gathered Together | Baek Hye-ok | Trans. Kim In-young
- 176 · 자연의 시 | 배정화
- 177 · Poetry of Nature | Bae Jeong-hwa | Trans. Kim In-young
- 178 · 꿈속에서 | 박정희
- 179 · In a Dream | Park Chung-hee | Trans. Kim In-young
- 180 · 저글링Juggling처럼 | 박재화
- 182 · Like Juggling | Park Jae-hwa | Trans. Kim Sok-hun
- 184 · 도다리쭈국, 봄이 피다 | 박일소
- 185 · Ridged-eye Flounder and Mugwort Soup, Spring Blooms
| Park Il-so | Trans. Jung Mi-seon
- 186 · 나의 길 | 박영하
- 187 · My Way | Park Young-ha | Trans. The Author
- 188 · 향기는 꽃이 필 때 | 박순자
- 189 · Fragrance Spreading at the Blooming of Flowers
| Park Soon-ja | Trans. Kim In-young
- 190 · 하늘다람쥐와 자작나무 | 박수화
- 191 · Flying Squirrel and Birch | Park Soo-hwa | Trans. Kim Sok-hun
- 192 · 새벽강 꽃 한송이 | 박대순
- 193 · One Flower by the Early Morning River
| Park Dae-soon | Trans. Jung Mi-seon
- 194 · 칠십 인생 | 박경희
- 195 · Seventy Years of Life | Park Kyung-hee | Trans. Kim In-young

- 196 · 아는 만큼 사랑하리라 | 박경은
- 198 · We'll Love As Much as We Know
| Park Kyung-eun | Trans. Woo Hyeong-sook
- 200 · 언어와 칼 | 박강남
- 201 · Language & sword | Park Kang-nam | Trans. Park Cheon-yong
- 202 · 맥문동 꽃 | 문철호
- 203 · Blue Lily-turf | Moon Cheol-ho | Trans. Jung Mi-seon
- 204 · 3차원 시간 위로 4차원 시간이 | 맹숙영
- 205 · Four-dimensional Time Above Three-dimensional Time
| Maeng Sook-young | Trans. Woo Hyeong-sook
- 206 · 비둘기 편지 | 노유섭
- 207 · A Dove's Letter | Noh Yu-seob | Trans. Kim Sok-hun
- 208 · 안달루시아 초원 | 노수승
- 209 · The Grassy Plain of Andalusia
| Noh Su-seung | Trans. Woo Hyeong-sook
- 210 · 포도 | 노금선
- 211 · Grapes | Rho Keum-seon | Trans. Kim Sok-hun
- 212 · 외로움이란 것 | 남상광
- 213 · Loneliness | Nam Sang-gwang | Trans. Jung Mi-seon
- 214 · 꽃의 속도 | 김혜숙
- 215 · The Speed of Flower | Kim Hye-sook | Trans. The Author
- 216 · 편지 | 김태룡
- 217 · A Letter | Kim Tae-ryong | Trans. Kim In-young
- 218 · 숲에 가을바람 불면 | 김철기
- 219 · If the Wind Blows in the Wood | Kim Cheol-ki | Trans. Kim In-young

차례 contents

- 220 · 천나무가지와 나 | 김종희
- 221 · Fir Branches and I | Kim Jong-hee | Trans. Woo Hyeong-sook
- 222 · 추분이 왔네 | 김유조
- 223 · Autumn Equinox is Here! | Kim Yoo-jo | Trans. The Author
- 224 · 석인(石人) | 김유제
- 225 · A Stone Figure(石人) | Kim Yoo-jae | Trans. Kim Sok-hun
- 226 · 바람 따라서 | 김용옥
- 227 · Of the Wind | Kim Yong-ok | Trans. Kim In-young
- 228 · 바람 | 김완용
- 229 · The Wind | Kim Wan-yong | Trans. Kim In-young
- 230 · 가을밤 | 김영수
- 231 · Autumn Night | Kim Young-soo | Trans. Kim In-young
- 232 · 원願 | 김선진
- 233 · A Wish(願) | Kim Sun-jin | Trans. Kim Sok-hun
- 234 · 회로도 | 김선영
- 236 · Circuit Diagram | Kim Seon-yeong | Trans. Kim In-young
- 238 · 민들레 꽃 | 김병억
- 239 · Dandelion Flowers | Kim Byung-eok | Trans. Woo Hyeong-sook
- 240 · 천년 걸음 | 김민채
- 241 · Coming from a Thousand Years Away
| Kim Min-chae | Trans. Kim In-young
- 242 · 지금은 연구중 | 김미순
- 243 · Now Under Consideration | Kim Mi-soon | Trans. Kim In-young
- 244 · 가을 편지 | 김명수
- 245 · An Autumn Letter | Kim Myung-soo | Trans. Kim Sok-hun

- 246 · 폭설 | 김기월
- 247 · Heavy Snow | Kim Gi-weol | Trans. Jung Mi-seon
- 248 · 아버지의 등골 | 권천학
- 249 · My Father's Spine | Kwon Chun-hak | Trans. Woo Hyeong-sook
- 250 · 구부렁길 | 권경호
- 251 · A Winding Path | Kwon Kyung-ho | Trans. Kim In-young
- 252 · 홍시紅柿 | 구재기
- 253 · A Red-ripe Persimmon | Koo Jai-ki | Trans. Kim In-young
- 254 · 감꽃 이야기 | 강정화
- 255 · A Story of Persimmon Flowers
| Kang Chun-hwa | Trans. Kim In-young
- 256 · 은자隱者의 노래 | 강에리
- 257 · Song of a Hermit | Kang Elly | Trans. Kim In-young

베트남 작가협회 시인 초대시

고 김용재 이사장님의 업적을 이어받아 해외문학 교류 차원에서 『poetry korea』 18호에 베트남작가협회의 대표시인 6명인 1. 국내 외 50여권 시집을 출판한 유명 시인 쩌 누안 민(Tran Nhuan Minh), 2. 베트남작가협회 현 부회장 쩌 당 코리아(Tran Dang Khoa), 3. 베트남작가협회 집행관(공무원) 키유 빅 하우(Kieu Bich Hau), 4. 여군 작가 팜 반 안(Tác giả Phạm Vân Anh), 5. 핑 트영(Nhà thơ ĐINH THƯỜNG) 하이퐁작가협회 회장, 6. 쩌 티 르우 리(Trần Thị Lưu Ly) 하이퐁작가협회 부회장의 초대시를 신는다.

고 김용재 이사장님과 현대시협 회원 31명은 2018년 3월 하노이에서 베트남작가협회(휴틴Huu Thinh주석)와 상호 협력하여 문학교류 MOU를 체결 하였고 시낭송과 문학세미나

를 실시하였다. 한·베트남 양국어의 시집도 발간하였다. 2019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베트남 시인 13명을 초청하여 한국, 베트남 문학 비교 심포지엄을 하며 우의를 더욱 다지며 문학교류를 활발히 하였다.

2024. 2월 한국방문단(정근옥 단장) 김명아, 이정희, 장건섭, 조규수, 지은경, 홍중기, 전민 등 10명이 베트남작가협회(응우옌 꽝티우 Nguyen Quang Thieu 회장) 초청으로 베트남 시(詩)축제에 참가하였다. 한국현대시협 회원이자 대부분이 우리 국제계관시인연합 한국본부 회원이다. 한국문학의 해외교류는 계속 이어갈 것이다.

The Invited Poems of Six Vietnamese Poets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late chairman Kim Yong-jae, who always emphasized the exchange of culture and literature with the writers in foreign countries, we present the poems of six Vietnamese poets in this issue of *Poetry Korea*, vol. 18. These poets include (1) a renowned poet Tran Nhuan Minh, who has published over 50 poetry books, (2) Tran Dang Khoa, who is the vice-president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3) Kieu Bich Hau, who is a public official working for Vietnam Writers Association, (4) Tác giả Phạm Văn Anh, who is a writer having served Lieutenant colonel, (5) Nhà thơ ĐÌNH THƯỜNG, who is the president of Hai Phong Writers Association, and also (6) Trần Thị Lưu Ly, who is the vice-president of Hai Phong Writers Association.

The late chairman Kim Yong-jae and 31 members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signed the MOU with the president Huu Thinh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in March, 2018, in Hanoi, to cooperate each other for the exchange of literature, held seminars and poetry reciting event and published the collection of poems in Korean/Vietnamese. Next year in 2019, we invited 13 Vietnamese poets to Busan, Korea, from September 14 to 16 and held seminars to compare the literature of Korea and Vietnam and improved friendships of writers between two countries while exchanging literary culture and traditions.

And in February, this year, 10 members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invited by the president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Nguyen Quang Thieu have visited Vietnam to participate in Poetry Festival. These Korean poets are Jung Geun-ok (the head of the visit), Kim Myung-ah, Lee Jung-hee, Chang gun-seup, Cho Kyu-soo, Gee Eun-kyung, Hong Jung-ki, Jeon Min, and others. Most of the visitors are the members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and, at the same time, the member of UPLI-KC. So, we will keep trying to do our best in order to improve cultural and literary exchange between two countries here through *Poetry Korea*.

Tran Nhuan Minh / 쩨뉵안민



Born in August 20th, 1944 in Hải Dương, now lives and writes in Quảng Ninh, Vietnam since 1962, has published 49 collections of poems both inland and abroad, concentrating on a unique subject which deals with the unfortunate fates of the people caused by the ruthless clashes of the situation. This author's works have been republished several tens of times, translated into 18 languages, and published in 22 nations of the world. He has received numerous literary awards, including the 2003 Vietnam Writers' Association Award, the Vietnam State Award for Literature and Arts in 2007, and the Mekong River Literature Award in 2020. He has also been honored with 3 Labor Medals: Third class, Second class, and First class, as well as 8 Medals and 3 Creative Labor Diplomas.

1944년 8월 20일 하이즈엉(Hai Duong)에서 태어나 1962년부터 베트남 쩡닌(Quang Ninh)에 거주하며 글을 쓰고 있다. 국내외에서 49권의 시집을 출판했으며, 상황의 무자비한 충돌로 인해 발생한 민족의 불행한 운명을 다루는 독특한 주제에 집중했다. 이 작가의 작품은 수십 번 째 출판되어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22개국에 출판되었다. 그는 2003년 베트남작가협회상, 2007년 베트남국가문학예술상, 2020년 메콩강문학상 등 수많은 문학상을 수상했다. 또한 3개의 노동훈장(3급, 2급)을 수상했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메달 8개, 창의적 노동 수료증 3개를 받았다.

혼자 가고 있나요?

| 27

- 전 누안 민 (Tran Nhuan Minh)

젊은 그대여, 왜 당신은 혼자 걷고 있나요?
당신의 연인은, 당신의 남편은 어디 있나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한쪽 날개만으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는 꽃들은 단 한 떨기 꽃도 피우지 못해요

젊은 그대여, 왜 당신은 혼자 걷고 있나요?
인생은 여전히 평화롭지 못하고, 텅빈 거리에는
미친 호랑이 무리가 여전히 뒤쪽에서 어슬렁거리고
앞에는 약탈자들이 기다려요
한순간의 방향이 자칫 생명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그대여, 왜 혼자 걷고 있나요?
제가 동행 해드릴까요?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는 없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시 한편 짚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많은 이들이 노상 강도 보다 나를 더 무서워한답니다!

GO ALONE?

Young lady, why are you walking alone?

Where is your lover? Your Husband?

Airborne birds do not fly with just one wing

Earthbound flowers do not produce a single bloom...

Young lady, why are you walking alone?

Life is not yet peaceful. the streets are empty

Crazed tigers still stalk from behind

Marauders await in front

A moment of wandering may be at the cost of a lifetime!...

Young lady, why are you walking alone?

Can I accompany you?

I have no weapon in hand to protect you -

beside an unfinished verse

Many fear me more than they do the highwayman!

Em gái ơi, sao em đi một mình
Người tình em đâu? Chồng em đâu?
Chim trên trời không bay một cánh
Hoa dưới đất không nở một bông...

Em gái ơi, sao em đi một mình
Cuộc sống chưa bình yên. Đường vắng
Hổ điên vẫn phục ở đằng sau,
Thằng gian còn chờ ở phía trước
Một phút lãng du, có khi em phải đổi một đời người!...

Em gái ơi, sao em đi một mình
Anh đi cùng em, có được không?
Anh chả có thứ vũ khí gì trong tay, để bảo vệ em -
ngoài một câu thơ đang viết dở
Khối kẻ sợ anh, hơn cả bọn cướp đường!...

Tran Dang Khoa / 찐 당 코아



Born April 26, 1958 in Điền Trì village, Quốc Tuấn commune, Nam Sách District, Hải Dương. Currently the Vice-President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the Editor-in-Chief of Nhà Văn & Cuộc Sống Magazine, and the Vice-President of the Hà Nội Alliance of Arts and Literature Associations.

1958년 4월 26일 하이즈엉(Hai Duong) 남삭현 꾸옥뚜언 코뮌 디엔찌(Diền Trì) 마을에서 태어났다. 현재 베트남작가협회 부회장, 작가 & 매거진(Nhà Văn & Cuộc Sống)의 편집장, 하노이예술문학 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 쩌 당 코아 (Tran Dang Khoa)

죽은 바다가 아닙니다. 고통을 겪으며,
자유, 행복,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바다가 되기 위하여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탈출해야 했고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고통스럽게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조차도 탈출할 수 없는 죽음의 사해 바다였습니다.
죽음 속에 평화는 없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늘에는 피와 눈물을 상징하는 줄무늬의 깃발이 나부끼고
지독히도 짜고 쓰라려, 그 어느 것도 여기에는 가라앉을 수 없습니다

그 바다는 여전히 울부짖는 눈망울로 빛나고 있군요
비록 인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있음에도
해안을 따라 있는 나무들이 슬픔을 가눌 길 없는 그곳에
사람들은 어디에 있나요? 하늘만 심오하군요

세계를 반쯤 건너와
바다에 왔지만, 그 바다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만약 강철 펜스를 넘어오면 총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를 읽고 우리는 서로를 보기 위하여 철조망을 통과합니다...

팔레스타인 6-2023

* 철조망을 따라 걸려있는 경고에 적혀있는 문구

DEAD SEA

That is not the Sea. The humans full of sufferings
Yearning for Freedom, Happiness, Love
Had to escape from their human lives to become the Sea
Crossing the desert of anguish to a way to the Ocean...

But even the Sea can't escape. The Sea has become the Dead Sea.
There is no peace even in death. They are imprisoned still.
One of the knotted strips in the sky is of blood and tears
So bitterly salty. So nothing can sink here

The Sea still glistens with a crying eye
As though it's trying to say something to the human race
But where are the humans? Heaven is profound
In having the trees along the shore struggle inconsolably...

I've crossed halfway across the world
Coming to the Sea but not reaching the Sea

IF YOU CROSS THE STEEL FENCE, YOU WILL BE SHOT*
So we pass through the barbed wire to look at each other...

Palestine 6-2023

* The inscription on the prohibitive sign hung along the barbed wire...

Không phải Biển đâu. Những kiếp người đau khổ
Khao khát Tự do, Hạnh phúc, Yêu thương
Đành thoát khỏi kiếp người mà thành Biển
Vượt sa mạc đọa đầy, tìm cách đến Đại dương...

Nhưng Biển cũng có thoát được đâu. Biển đã thành Biển Chết
Chết mà chẳng được yên. Vẫn bị tù đầy
Một giải quần thắt bên trời là máu và nước mắt
Mặn đến đắng ngắt kia. Nên chẳng có gì chìm được ở đây

Biển vẫn long lanh một con mắt khóc
Hình như muốn nói điều chi với cả loài người
Nhưng loài người ở đâu? Trời thì sâu thăm thẳm
Để cây cỏ ven bờ cũng vật vã khôn nguôi...

Ta đã vượt qua cả nửa vòng trái đất
Đến cạnh Biển rồi mà có tới được Biển đâu
NẾU VƯỢT HÀNG RÀO THÉP GAI SẼ BỊ BẮN*
Đành qua hàng gai thép để nhìn nhau...

Palestine 6-2023

* Dòng chữ trên biển cấm treo dọc hàng rào dây thép gai...

Kieu Bich Hau / 키유 빅 하우스



Member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Member of POP (Poets of Planet - Network of the poets of the world); Managing editor of Writer & Life magazine; Media Director of SaVipharm; Founder and Head of Hanoi Female Translators; 9 Awards in Literature from Vietnam, Hungary, Italy, Greece, and Korea. Published 28 books of prose, poetry, essay in Vietnam, Italy, Canada, USA, Hungary, Romania. Her poems and short stories have been translated into many foreign languages (19): English, Italian, Korean, Russian, Marathi, Hindi, Romanian, Hungarian, Spanish, Portuguese, Nepali, Uzbek, French, German, Turkish, Chinese, Arabian, Montenegrin, Arabic...

베트남작가협회 회원. POP(Poets of Planet-세계 시인 네트워크) 회원, Writer & Life 잡지 편집장, SaVipharm 미디어 디렉터, Hanoi Female Translators 창립자 겸 책임자. 베트남, 헝가리, 이탈리아, 그리스, 한국에서 문학상 9회 수상. 베트남,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헝가리, 루마니아에서 산문, 시, 수필집 28권 출간. 그녀의 시와 단편 소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다(19): 영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러시아어, 마라티어, 힌디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 독일어, 터키어, 중국어, 아랍어, 몬테네그로어, 아랍어...

- 키유 빅 하우스 (Kieu Bich Hau)

윤희의 진흙밭에서 자라나
연꽃은 영원한 사랑의 시로 피어난다
각각의 꽃잎은 하나의 시구를 담아
계속해서 개화한다
개화하고
또 개화한다...

모든 타인들이 그 시구들을 읽을 때
행복감이 생겨나고
빛이 발산하며
금빛 씨앗으로부터 발현한
사랑이 모든 가슴 속에 자라난다
내 마음속에 공허함을 남기며
정화가 이루어진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PURIFICATION

Grows from the mud of samsara
The lotus blooms into endless love verses
Each petal contains a verse
continues to open
open
open more...

When all other people read those verses
The happiness will be released
The light will shine over
The love grows inside all hearts
from a golden seed,
Leave the emptiness in me
A purification
Just being here right now

Mọc lên từ bùn luân hồi
Đóa sen nở ra những vần thơ yêu thương bất tận
Mỗi cánh hoa hóa một vần thơ trong gió
Đưa yêu thương đi muôn nơi,
Và tiếp tục mở ra
Mở ra thêm nữa những cánh hoa...

Bất cứ ai đọc những vần thơ này
Sẽ nhận được ánh sáng
Hạnh phúc sẽ tỏa bay
Tình yêu nảy mầm nơi tất cả
Mỗi trái tim đã ươm sẵn hạt vàng
Chỉ cần dành cho tôi sự trống rỗng
Thanh lọc
Ngay bây giờ ở đây.

Tác giả Phạm Vân Anh / 팜 반 안



Born: 1980 in Hai Phong Province, Vietnam. Education: Master degree in Political Science, Lieutenant colonel, writer, poet, translator. Member of Vietnam Writers' Association: Published 12 books of prose and poetry; Won 15 national Literary and Musical awards.

1980년 베트남 하이퐁 출생. 정치학 석사, 육군 중령, 작가, 시인, 번역가. 베트남작가협회 회원. 시집, 단편소설, 회고록 등 12권 출간. 문학과 음악 분야에서 전국 15회 수상.

- 팜 반 안 (Tác giả Phạm Vân Anh)

수백만 년의 시간

수천 개의 은하들에 관해서

수천 개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행하고

수천 개의 우주 인공위성 모델들과 비교하며

천 개의 가설들을 세워보세요

가장 큰 푸른 행성은?

우주의 중심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소행성은?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수 많은 질문들

고대 근동 문명 속에 지구는 납작한 원반처럼 생각했고

지구가 그릇과 같은 하늘에 얹혀있는 것처럼 상상했다지요

회전하는 자연의 법칙 속에서 달리는 햄스터와 같은 우리 인생

아마도 우리는 불변의 궤도 속에 돌고 있는 하나의 별일 뿐

인가요

지구 그 자체는

지진을 겪는 과테말라처럼 취약하여

산통을 겪는 여성처럼 경련을 일으키고

깨지고 부셔지고

뒤틀리고 그 속은 텅 비어있을 뿐인가요

지구 그 자체는
한밤중 어둠의 지진이 만들어 놓은 실체일 뿐인가요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된 핵심 에너지가
산과 바다 그리고 평야의 파동 속에 만들어진 구형의 행성일
까요
그리하여 지구는 그 자체로 존재하거나
아니면 시간이란 이름의 거대한 밑그림을 가지고 만들어
졌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는
단순히 생각하고
단순히 인정하게 될지
지구는 신들이 만든 식판에 놓인
하나의 큰 달걀과 같다는 것을

QUESTIONS

Millions of epochs
Thousands of galaxies
Demonstrating on thousands of algorithms
Comparing with ten thousands of models from space
satellites
Building a thousand hypotheses

The biggest green planet?
Space center?
Unknown asteroid?
Questions that have never been answered exactly
The ancient Near Eastern Civilization imagined the
earth as a flat disk
The people of the pre-scientific society named as a
bowl of the sky

We are likely Hamsters to run on the rotation of law
Likely a star on an unchanging orbit
Earth is itself
Guatemala Vulnerability
The earth constricts likely a woman in labor
Cracks and breaks
Twists and hollows

Earth is itself
An entity formed from a seism of darkness in the
night
Million years hidden layers of core energy
Forming a undulated sphere of mountains, oceans
and plains
Earth is itself
Or a giant draft named the time?

Who knows, one day
Simply think
Simply admit
Earth is just a big egg
On a rice tray of Gods

Triệu triệu kỷ nguyên
Hằng ức thiên hà
Thôi diễn trên hàng ngàn thuật toán
Đối sánh cùng vạn ức mô hình từ vệ tinh không gian
Xây dựng ngàn giả thuyết

Tinh cầu xanh lớn nhất?
Trung tâm vũ trụ?
Một tiểu hành tinh vô danh?
Những câu hỏi chưa bao giờ có lời xác tín
Nền văn minh Cận đông cổ đại hình dung trái đất là
chiếc đĩa dẹt
Người của xã hội tiền khoa học gọi tên chiếc bát của
bầu trờ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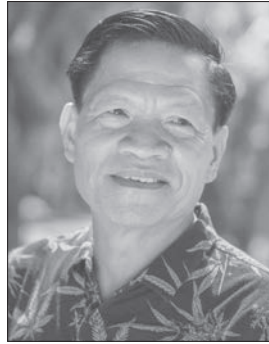
Chúng ta như loại chuột Hamster chạy trên vòng
quay định luật
Tựa vì sao trên quỹ đạo bất biến
Trái đất là chính nó
Lỗ hổng Guatemala
Lòng đất co thắt tựa người đàn bà trong cơn trở dạ
Gãy xiết và nứt vỡ
Trời xoắn và rỗng khoang

Trái đất là chính nó
Một thực thể hình thành từ địa chấn bóng đêm
Triệu năm tàng tích từng lớp lõi lượng
Thành khối cầu nhấp nhô linh sơn, đại dương và
bình địa

Trái đất là chính nó
Hay một bản nháp khổng lồ mang tên thời gian?

Biết đâu một ngày
Giản đơn nghĩ
Giản đơn thừa nhận
Trái đất chỉ là quả trứng to
Trên mâm cơm của các vị thần.

Nhà thơ ĐINH THƯỜNG / 덩 트영



Sinh : 1958Quê quán: Bắc Ninh.Vào Hội Nhà văn Việt Nam năm 2017Hiện là Ủy viên Ban Thường vụ Hội Liên hiệp VHNT Hải PhòngChủ tịch Hội Nhà văn Hải Phòng. Các tác phẩm chính đã xuất bản. Hoa Dã Quỳ, NXB Hải Phòng - 2009; Trái tim trước biển, NXB Hội Nhà văn - 2011; Chiều qua thung nhó, NXB Hội Nhà văn - 2015; Chạy đâu khỏi nắng, NXB Hội Nhà văn - 2020.

1958년 박닌 출생. 2017년 베트남작가회 회원. 현재 하이퐁문학 예술연합회 상무위원, 하이퐁작가협회 회장. 시집으로 『멕시코 해 바라기』(하이퐁출판사, 2009), 『바다 앞에 심정』(작가회 출판사, 2011), 『오후의 그리움』(작가회출판사, 2015), 『도망가도 햇빛에 못 피하다』(작가회 출판사, 2020) 등이 있다.

사랑시장에서 즉흥

- 평 트영 (Nhà thơ ĐÌNH THƯỜNG)

그대랑 데이트, 나랑 데이트
우리는 바람 언덕의 심지같다.
슬픔은 돌아다니면서
지붕에 매달린 달은 깎다가 취했다가

사랑시장에 누가 왔나?
그리움에 넘어 소망 가득 차 있지
봄꽃을 피우는 시
조금 따로, 긴 밤에 보내고 싶네

야간빛은 아침의 햇빛이 보이지만
멀리 떨어진 거리도 지울 수 없고
언제 내가 다시 나인가
간절한 말은 남기고 싶네

그대여! 오늘 같은 슬픈 밤에
산바위도 차가운 말을 하고
믿음이 뿌리없이 강에 흐른다
영혼은 혼란스럽고 배는 독으로 못 가네

사파, 2015년 8월 25

Hẹn hò em, hẹn hò tôi
Hóa ra như bác thả đờn gió hoang
Nỗi buồn bầy vĩa lang thang
Trăng treo mái phố bẽ bàng tình say.

Chợ tình ai đã tới đây
Dấu voi nổi nhớ, vẫn đầy ước mong?
Câu thơ mở đóa xuân lòng
Chút riêng, riêng gửi hút trong đêm dài.

Đèn đêm ngõ nắng ban mai
Cũng không xóa nổi lạc loài phố xa
Bao giờ ta lại là ta Để câu nhắn gửi thiết tha hỏi
người?

Đêm nay buồn lắm em ơi
Phải chăng đá núi nói lời giá đồng
Niềm tin đứt rễ trôi sông
Hồn người cỏ rối, thuyền không bến bờ.

- Sa Pa, ngày 25/8/2015

Trần Thị Lưu Ly / 찐 티 르우 리



Sinh năm 1966, hiện sống tại Hải Phòng. Phó chủ tịch Hội Nhà văn Hải Phòng, thuộc Hội Liên hiệp Văn học Nghệ thuật Hải Phòng. Giải Nhất 'Cuộc thi thơ về đề tài Hoa phượng' của Hội Liên hiệp Văn học Nghệ thuật Hải Phòng năm 2012. Tặng thưởng 'Tác phẩm hay năm 2013' của Tạp chí Cửa Biển. Giải Nhì 'Cuộc thi thơ Hải Phòng năm 2014 của Hội Liên hiệp Văn học Nghệ thuật Hải Phòng. Giải Nhì 'Cuộc thi thơ của Tạp chí Nhà văn và Tác phẩm Hội Nhà văn Việt Nam' năm 2017-2018. Đã xuất bản. Tập thơ 'Khát vọng tìm mùa' năm 2010. Tập thơ 'Thêm muối vào lời' năm 2020.

1966년 출생. 현재 베트남 하이퐁시 거주. 하이퐁문학예술연합회 산하 하이퐁작가협회 부회장. 2012년 하이퐁문학예술연합회 '봉황꽃을 주제로 한 시 공모전' 최우수상. Sea Magazine에서 '2013년 최고의 작품' 수상. 2014년 하이퐁문학예술연합회 하이퐁시 공모전 2등상. '베트남작가협회 및 작가 잡지의 시 대회' 2등상. '남쪽' 2017~2018 게시됨. 시집 2010년 『계절을 찾는 염원』, 2020년 『말에 소금을 더하다』 출간.

햇살이 부르는 이름

- 쩌 틈 르우 리 (Trần Thị Lưu Ly)

어린 시절에도 달을 보았건만
오늘에야 만월이 이토록 사무치네
호롱등 연희가 묵은 해로 떠나간 후에야
낮설기도 하지, 불현듯 달이 밝다

반짝이는 햇빛이 노래하는 날
밤은 희열의 공간이 되네
빛의 분말들은 지구 절반에 사랑을 뿌리듯
적막한 밤에 타오른다

사랑이 넉넉하면 원망도 지워지리
전투의 승자와 패자가 초면의 인사처럼 반가이 서로를 보네
낮은 환한 빛으로 사랑의 선물을 밤에게 보내나니
달빛 아래서 '행복'이란 이름을 평화로이 부르네.

CHO NẮNG GỌI TÊN

Không phải vì thuở nhỏ chẳng trông trăng
Nay mới thấy một rằm tròn rạng rỡ
Khi hội đèn sao đã thuộc về Trung thu năm cũ
Chợt thấy lạ lòng, trăng sáng thế, trã
Ngày ngân nga lóng lánh nắng mặt trời
Gửi đêm tới không gian tràn hoan lạc
Những giọt sáng thấp trong đêm bát ngát
Nhu ân tình nửa trái đất dồn sang

Đủ yêu thương sẽ xóa đi thù hận bể bàng
Sau cuộc chiến, người thắng người thua nhìn
nhau hân hoan như lần đầu mới gặp
Chung điệu thức hòa bình dưới trăng ngàn gọi tên
hạnh phúc

Nhu ngày yêu thương đêm, đem ánh sáng ngập tràn.
ng oi!

Semiannual Anthology by 96 Poets of Korea

/ Edited by UPLI Korea Center /

가을의 꽃

홍중기

가을의 꽃은
하얀 구름이다

하늘은 푸른 바다를
맑고 구름꽃을 피워
시를 쓴다

사랑은
눈빛에 곱게 안기는
그리움이라고 쓰는 시

홍중기

베트남 나트랑 사이공 방송국 근무(중군기자), 1982년 시집 『아기 걸음
마』로 작품활동 시작, 남양주시인협회 고문, 한국전쟁문학회 회장



Hong Joong-gi / Trans. Jung Mi-seon

The flower of autumn is
a white cloud.

The sky resembles
the blue sea and composes a poem
with cloud flowers.

Love is
a poem of longing
that shines beautifully in the eyes.

■ Hong Joong-gi

Worked at Saigon Broadcasting Station in Nha Trang, Vietnam as a war correspondent.
Made literary debut in 1982 with a poetry book *Baby Step*. Adviser of the Namyangju
poets Association and president of the Korean War Literature Association.

먹물꽃

홍재인

단계연 벼루
물 담긴 호수가 될 때

반 남은 먹자루
갈리는 소리 청아한 곡조가 될 때

낮은 붓대
대숲 속 한 그루 오죽 같을 때

화선지 위 문자
학들이 날아올라 군무를 추듯 할 때

산더미처럼 버려진 종이들 속에서도
먹물은
꽃을 피운다

홍재인

『시문학』 등단 (1999). 시·서·화 개인전 2회. 시집 『늘 연습 중』, 『너는 어디에 있는가』, 『먹물꽃』



Hong Jae-in / Trans. Woo Hyeong-sook

When the high-quality ink stone
becomes like a lake full of water,

when grinding half the ink stick on the ink stone
sounds like a clear tune,

when my old calligraphy brush
looks like a black bamboo in a bamboo forest,

when the letters on calligraphy paper
look like cranes dancing together in mid-air,

the black ink
blooms
even in mountains of discarded paper.

■ Hong Jae-in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in 1999 through the magazine, *The Poetic Literature*. She had two solo exhibitions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she published three collections of her poems : *Always Practicing*, *Where Are You?* and *Ink Flower*.

겨울잠

홍윤표

굳게 닫힌 겨울 현관 앞에서 거치른
눈매를 감싸고 겨울잠에 든다

신춘의 대문을 열자 일제히 일어서는
건양다경建陽多慶 입춘의 메아리
꽃꽃을 소개할까요
꽃소식을 전할까요

별 나비 하늘하늘 허공에 춤추는 몸짓
화려한 지상에 가는 길을 여니
먼 산 진달래 꽃망을 산자락에 앉아
눈망을 크게 떠 꿈틀대니 능선이 아름답다

노숙에서 깨어나 지상에서 뛰는
맥박소리 들으니 온 생명은
봄의 날개 달고 비상할 준비가 바쁘니
겨울잠에서 깬 몸부림이다

홍윤표

시인. 명예문학박사. '90 『문학세계』 시, 『시조문학』 시조, 『소년문학』 동시조 데뷔, 국무총리 표창, 충남도문화상, 전영택문학상, 시집 『붉은 무지개』 외 23권, 한국문인협회자문의원, 국제펜한국본부이사, 한국시인협회원, 충남시인협회 이사.



Hong Yoon-pyo / Trans. Kim Sok-hun

In front of a tightly closed winter porch,
it starts to hibernate with wild eyes wrapped around its face.

As soon as the New Year's gate opens,
an echo of spring springs on its feet.
Shall I introduce the wild flowers?
Shall I tell you the news of blossoms?

As bees and butterflies dancing in the sky
open the way to the glorious earth,
the ridge is beautiful when I open my eyes wide and wiggle,
sitting on the mountain foot full of azalea bloom in the
distance.

After I woke up from sleeping outdoors
and heard the pulse beating on the ground,
all lives are busy preparing to fly with the wings of spring.
It's been a struggle that I woke up from hibernation.

■ Hong Yoon-pyo

Poet, Honorary Ph.D in literature, Made debut as a poet through *Moonhak Segye*, as a sijo poet through *Sijo Moonhak*, and as a children's story sijo poet through *Sonyeon Moonhak*, Awarded the Prime Minister Citation, Chungnam Cultural Prize, the Jeon-Youngtaek Literature Prize, Published 23 poetry books including *Red Rainbow* and more, Advisory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A director of the Korea PEN.

나무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홍명희

나는 나무의 가느다란 줄기 하나가 내미는 동그란 열매를 손가락으로 받아먹었다

열매는 구운 은행처럼 연한 연두색이었고 말랑말랑했다

혀끝으로 열매를 굴리자 입안에서 노랗고 비린 피라미 맛이 났다

노란 알갱이에서 어린 피라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파닥거리며 입속을 헤엄치기 시작했다

입안이 간지러워 라고 말하자 나무의 눈이 내 손을 잡아 그리고 눈을 감아 라고 말했다

나는 약간의 어지러움을 느끼며 그네에서 막 내린 것처럼 잠시 흔들렸다

마음으로만 눈을 떠 그럼 날 수 있을거야

나는 홀린 듯 심장 속에 깊이 숨겨 두었던 두 눈을 꺼내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집게처럼 눈꺼풀을 열었다

작고 낮은 웃음소리가 먼저 흘러나왔고 희미하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이 오고 있었다

홍명희

첫시집 『나무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심상』 등단,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현대시인협회 이사, (전)국제PEN한국본부 대전지회 사무국장, 단비문학회 회장, 대전문인협회 회원, 대전문인총연합회 회원, 대덕구배달강사, 대전북부여성가족지원 강사, 대덕구장애인복지관 시창작 강사



Hong Myung-hee / Trans. Kim In-young

I took and ate with my fingers a round fruit hanging on the stem of a tree

The fruit was soft in light green like a roasted ginkgo nut

Rolling the fruit with my tongue, I had fishy taste in the mouth

I felt like small minnows were hatched from eggs wriggling to swim in the mouth

When I murmured “I feel tickling in the mouth,” the eyes of the tree caught my hands and said “close your eyes,” and this time I felt dizzy a little bit as I did right after getting off a swing.

“Open your eyes only in the mind, so you can fly in the sky,” I seemed to hear, and I found myself, as if possessed by something enigmatic, taking out the eyes hidden deep down in the heart and forced to lift the eyelids with my fingers

Then, hearing the sounds of low laughing coming from somewhere, I could faintly see something like trees walking around me. Morning was coming

■ Hong Myung-hee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sang*,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PEN, Korea Center &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resident of Danbi Literature Association, Member of Daejeon Writers Association & Daejeon Literary Association United, Published poetry book *Lips of a Tree began to Move*.

마지막 흘린 눈물

- 윤동주 생가에서

허진숙

정차처럼 고적한 명동집
 앞산 드리운 병풍 구름 안고 가는데
 몰래 쓰다가 지워버린 흔적
 가슴속 고이고이 묻어 안고
 님은 가셨습니다

뒷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님의 가슴 훑쳐보려고

빼앗긴 나라 찾아
 울며 삼키며 길 떠나신 님 그리워
 이곳까지 찾아왔으나
 우물은 그대로 달이 뜹니다

후쿠오카 붉은 감옥은
 명동 땅에서 멀고 먼 남의나라
 붉은 담장 마지막 흘린 눈물
 우리 민족 눈물입니다

허진숙

2010년 농민문학 등단, 국제 pen한국본부, 현대시인협회, UPLI 국제본부 회원, 시집 『그 사람은 아름다웠다』 등 4권



Last Tear

| 61

– At Yoon Dong-ju's Birthplace

Heo Jin-sook / Trans. Jung Mi-seon

A lonely Myeongdong house that looks like a pavilion
cradles a folding screen of clouds over the mountain.
But you are gone
burying the traces secretly written and erased
from your heart.

I sat on the toenmaru,
gazing at the distant mountains,
hoping to uncover your hidden thoughts.

I came here
because I miss you, who left, swallowing your tears
to reclaim our country,
The moon rises above the well, just as it always has.

The red prison in Fukuoka is
a foreign land, far from Myeongdong.
The last tear shed within those red walls is
a tear of our people.

■ Heo Jin-sook

Made literary debut through *Nongmin Moonhak* in 2010. Member of the Korean PEN, the Modern Poets Association, and UPLI. Published four collections of poetry, including *The Man Was Beautiful*.

단풍에 숨어서

허만길

단풍에 숨어서
누군가를 애타게 보는 사람
그 사람 그리움
붉게 붉게 익네.

단풍에 숨어서
누군가를 다가가는 사람
그 사람 그리움
붉게 붉게 타네.

골짜물 내려다보면
골짜물 붉게 물들고

쪽빛 하늘 쳐다보면
쪽빛 하늘 붉게 타네.

산새 울음 붉게 울고
그리움이 불타네.

허만길

문학박사. 시인. 소설가. 복합문학(Complex Literature) 창시자. 국제 PEN한국본부 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국소설가협회 중앙위원. 시집 『열다섯 살 푸른 맹세』(Blue Vow of 15 Years Old), 『역사 속에 인생 속에』(In History and in Life) 등



Hur Man-gil / Trans. Kim In-young

Hiding in tinged leaves of autumn
anxiously looking at someone
stands a person whose longing
become ripe in bright red

Hiding in tinged leaves of autumn
getting closed to someone
stands a person whose longing
become ripe in bright red

Looking down at the water of a valley
makes the water turn red

Looking up at the blue sky
makes the sky burn in red

Birds in the mountains keep crying
resonating their longing ablaze in fiery red

■ Hur Man-gil

Ph.D. in Literature, Poet & Novelist, Founder of Complex Literature, Board Member of PEN International, Korea Center &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Central Committee Member of Korean Novelists Association, Published the Collection of Poems *Blue Vow of 15 Years Old, In History and in Life*, and many others.

쑥부쟁이

한문석

달빛에 행구고 씻어내도
지워질 수 없는 그리움이다

맑게 젖어드는 이슬
향 푸른 잎 굴러 내리면
자지러지는 풀벌레 울음소리

바람은 긴 머리채를 풀고
발 언덕 아래
꽃잎마다 부풀어 오른다

울곧게 타고난 기쁨
자줏빛 가슴 쏘옥 내민다

한문석

시집에 『사랑이란 이름으로』 등 11권이 있고 대전광역시문화상(문학부문) 등 다수를 수상함. 현재 한성기 문학상운영위원회 회장으로 활동



Han Moon-seok / Trans. Kim In-young

Even after cleansing and rinsing with the moonlight
longing stays yet unwashed out

Clear dewdrops roll down
on the saturated leaves green in scents
in the sounds of grass bugs crying

In the wind putting down its long tresses
every petal of asters rises with the swelling heart
at the field down the hill

Pleased with being born straight and honest
they push out the chests in purple further in front

■ Han Moon-seok

Han Mun-seok made his debut as a poet through *The Leading Literature*. He published eleven collections of his poems, including *In the Name of Love*. He received the Daejoen Poets Award and many more. The president of steering committee for Han Seong-gi Literature Prize.

커피의 길

하희경

열다섯 살 커피는
 까만 밤 지우는 지우개
 입지 못할 옷에 손도장 찍으며
 태양을 꿈꾸는 해바라기였다

스무 살에 만난 커피는
 반짝이는 쇼윈도에 눈멀고
 유리구두 찾아 밤길 걷는
 신데렐라의 꿈이었다

마흔 살 커피는
 아무도 모르게 마시는 까만 눈물
 쉽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에 끼어
 멈춰야 하는 순간을 잊어버렸다

이제 몇 살인지 알 수 없는 커피
 스쳐 간 날들을 만화경에 담아
 갈 곳도 출발할 곳도 모르게
 다만, 향기로 남아 쉬고 있을 뿐이다

하희경

『한국문학시대』 시 등단. 『시와 정신』 수필 등단. 시집 『기차와 김밥』,
 『돌아오지 않는 시』



Ha Hee-kyung / Trans. Woo Hyeong-sook

The coffee I drank at the age of 15
was like an eraser that helped me forget black nights.
It was like a sunflower dreaming of the sun,
by making me touch the clothes I couldn't wear.

The coffee I met at the age of 20
was like the dream of Cinderella
wandering on streets at night to find glass shoes,
fascinated by shiny show windows.

The coffee I drank at the age of 40
was like black tears that I had in secret.
Caught in a ceaselessly spinning cog wheels,
I forgot the moment I had to stop.

Now, coffee doesn't know how old I am;
its bygone days are in a kaleidoscope.
Not knowing where to go and where to leave,
it's just resting as a scent.

■ Ha Hee-kyung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through the magazine, *The Age of Korean Literature*, and as an essayist through the magazine, *The Poetry and Spirit*. She published two collections of her poems : *Train and Gimhap* and *Poems That Don't Return*.

서로西路

하미숙

김 서린 유리벽 밖
날개 펼친 너는 떠날 차비 마치고

원할 수 없었던 따스함은 채워져
너의 향기로 달콤하게 스며든다

동그랗게 웃어 주던 자리
믿어주기 게임은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우리 이야기

약속 희망 사랑
이런 말 잠시 미루고
눈 마주 보고 손 잡고 웃자

가을 마중 온 알마티 공항에서
새롭게 만난 너는
홀쩍
구름을 넘어 달빛에 기대신다

하미숙

경남 진주 출생, 대전북포럼 대표, 2020년 시와정신 시부문 신인상,
시집 『너라는 계절』



A Westbound Road

| 69

Ha Mi-sook / Trans. Kim In-young

Outside the glass wall fogging up
you are ready to take off with the wings spreading

The warmth I couldn't ask for fills the air
imbuing with the sweet scent of you

At the place you circled around with the smiley face
trusting is not the game to play any more
for we are starting to write our story

Promise, hope, and love
let's put those words away for a while
and smile, holding hands together, looking in the
eyes

At Almaty Airport in the coming autumn
you are looking afresh
taking off
leaning on the moonlight over the clouds

■ Ha Mi-sook

Poet, Born in Jinju, Made literary debut through *Poetry & Spirit* in 2020, Awarded the New Poet of the Year in poetry.

기억

최창일

먼지를 털어내고 방치된
 동화책장을 넘기자
 종이에서 솟아난
 부스럭부스럭 소리와 오래된
 이야기가 코로 밀려들어 온다

서랍 저편 밑바닥에 접어둔
 술한 계기들은 수없이
 되살아난다
 반듯이 정리해놓은 셔츠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물같이
 멋대로 돌아다닌다

동묘의 헌책방에서 ‘빨간 머리 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돌 말아진 흔적을, 넘기다
 책방을 나서는 순간
 환하게 비추던 보름달 속 토끼도
 접어둔 기억을 꺼내 들고 있다

최창일

1993년 『시와 사람』으로 시 쓰기 시작. 시집 『시화무』 외 9권, 산문집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101가지』(스테디셀러), 한국현대시인협회 수석 부이사장, 한국문인협회 대변인 역임. 한국현대시인상, 한국언론사 연합회 문화대상, 현 광운대학교 명예교수



Choi Chang-il / Trans. Kim In-young

After dusting off a children's book
flipping through the book neglected for long
I felt like I could smell of a fairy tale
coming alive with the rustling sound
from the pages

So many stories and events that have been kept
in the bottom of the drawers
come back again and again
not as the shirts neatly folded in and taken out
but as recurring memories coming back
like living things running wild out of control

Fascinated by the story of great popularity
while reading *Anne of Green Gables*,
I almost lost track of time
until I got out of a used bookstore near Dongmyo Shrine;
meantime, the rabbits living in the full moon shining bright
are also taking out many folded memories of their own

■ Choi Chang-il

Made literary debut through *Poetry and People* in 1993. Emeritus professor at Kwangwoon Univ., Senior vice-president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Former spokesperson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Published poetry book *Sihwamu* and the collection of prose, *101 Things You Have to Do in Life*. Awarded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rize.

소금꽃

최재문

신안 서해랑 해안선에 동튼 햇덩이

쏟아지는 붉은 땀별 가슴으로 안아
 가파른 격랑 바람의 갈퀴로 끌어모아서
 파도 마디 허물어 시간을 찢어 절이고
 고운 빛깔 움튼 화음의 향기로
 격랑을 흔들어 달콤한 해조음을 수 놓아
 물살에 반사된 햇살은 물결따라 출렁이고

파랑이 조석潮汐으로 들끓는 서해랑
 칠면초 갯개미취 함초 염생의 갯골에는
 달빛 짙던 별빛 오붓한 소뜸의 미소를 받아
 맛의 심장이 간을 품어 신비를 토해놓고
 별꽃 같은 물의 흰 뺨 수정체 무리가
 맑은 바람 맑은 달빛이 빛은 토관염이라

염부의 가슴으로 피운 희세의 소금꽃



최재문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전 UPLI Poetry Korea 주간

Choi Jae-moon / Trans. Kim In-young

The blazing sun rises at the west coast of Sinan area

Embracing the scorching sunlight coming down in the chest
gathering seawater with the rake made by the high wind
breaking waves to be preserved in the shallow basins of time
embroidering the sweet sounds of flowing seawater
with the scents of the ocean coming in harmony of beautiful
colors
along with the rolling sunlight reflected on the waves

Seepweed, sea aster, glasswort, salt grass all grow in tidal channel
on the west coast where waves flow in and out all the time
As the heart of taste making mysterious substance
with the help of sodium created by starlight reflecting the
moonlight
white heap of salt crystals harvested from seawater shining like
stars
are the product of the clean wind and bright moonlight

The flowers of salt bloom in the heart of salters

■ Choi Jae-moon

Poet & Columnist. Made literary debut through *The Korean Literary Period*. Former chief-editor of the UPLI, Korea Center.

갈대를 위하여

최원규

나는 갈대와 같다
바람부는대로 이리저리 살아왔다
꺾이지 않기 위해

늦여름 무더위는 찌다 못해
장작불이 활활 타듯

무간지옥 살이 달아 오른다
이승의 죄 하나 둘 안개로 피어오른다
바람이 거세게 분다

나는 이제사
내몸을 스스로 돌아본다

최원규

시인. 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자유문학』 신인상 당선(1962), 시집 『구
순에서 칠순에게』 등. 충남대학교 인문대학장 역임



Choi Won-kyu / Trans. Cho Mi-na

I am like a reed
I have lived to and fro shaken in the wind
To prevent me from breaking down

It is too hot in the late summer
Like a burning firewood

My flesh gets hot in the eternal hell
The guilty of my life is exposed gradually as the mist
A gale is blowing to me

At last I can look back
To see my body by myself

■ Choi Won-kyu

Poet, literary critic, Ph.D. in literature, Former dean of the humanities college at Chungnam Univ. Made literary debut through Jayoo Literature, winning the new writer prize in 1962. Published poetry book From the elderly of 90s to those of 70s.

싸리꽃

최송석

가난 때문에 산에 오르던 시대
 산마저 가난해
 싸리나무 쓰임새는 요긴한 자원이었다

비탈을 기어오를 때
 옥양목 치맛자락 날리듯
 하얗게 흔들리던 꽃

청산에 오르다 주저앉아
 전설 같은 시대를 기억하는 것은
 삼간초가 삭정이 울타리에
 외딴 싸리문

산다는 것
 얼마나 뿌리 깊은 의지로 지탱해 왔는지
 산은 푸른 산
 높이 올라간들 무엇하랴?

질기게 살아온 내력이
 바람에 하얗게 흔들린다.

최송석

1984 『詩와 意識』 신인상 등단, 한국문협 대전광역시지회장 역임, 한국 PEN문학상, 대전광역시문화상〈문학〉 수상



Choi Song-seok / Trans. Cho Mi-na

When I climbed a mountain because of poverty
Even the mountain was so poor,
people used the bush clover as the valuable resource.

When I was crawling on the steep mountainside
The white blossom swayed in the wind
Like a skirt of Calico.

I was sitting down suddenly while I climbed the blue mountain
And remembered the hatched cottage that no more than
three rooms
Of the dried wooden fence of the old age like a legend
With the single door of the bush clover.

To be alive is supported by
An amazing determination
The mountain is blue
What is good for climbing a mountain top?

The life history of suffering age
Is swaying in the wind.

■ Choi Song-seok

Poet. Made literary debut through *Poetry and Consciousness* in 1984. Former president of Daejeon Branch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Awarded Daejeon Metropolitan City Culture Prize in literature.

꽃보다 눈부신 사람

차옥혜

꽃을 보기 위하여
 먼 길 걸어가는 이여
 오래 아파하는 이여
 꽃을 위하여
 오래 울고 있는 이여
 꽃을 지키기 위하여
 긴 세월 시달리는 이여
 꽃을 보고 꽃과 함께하는 시간은
 순간이지만 언제나 아쉽지만
 때로는 끝내 못 만나기도 하지만
 꽃을 위하여
 모두를 바치는 당신의 삶은
 꽃보다 더욱 아름답다 순결하다.
 꽃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당신은
 꽃보다 더욱 눈부시다.

차옥혜

1984년 『한국문학』으로 등단. 시집 『비로 오는 그 사람』, 『식물 글자로 시를 쓴다』, 『말의 순례자』 외 12권. 경희문학상, 경기펜문학대상 등 다수 수상



Cha Ok-hye / Trans. Jung Mi-seon

A person who travels far
to see flowers,
Someone who has endured pain for a long time,
A man who has cried for flowers
for years,
A man who faces challenges
to care for them,
Being with flowers
that may not bloom can feel
fleeting and sad,
However, dedicating himself
to their care is
more beautiful and innocent than the flowers,
A man who has waited for flowers for a long time
shines
even brighter than the blooms.

■ Cha Ok-hye

Made literary debut through *the Korean Moonhak* in 1984, Published 12 collections of poetry, including *The One as Rain*, *Writes Poems in Plant Letters*, and *The Pilgrim of Word*, Received the Kyunghee Literature Award, Gyeonggi Pen Literature Award, and many others.

일몰 후

진형곤

어찌해서
하늘이 가슴보다 붉습니까

당신께서 뿌려 놓으신 사랑처럼
혈관 한 가닥 타듯
하늘 끝 한 줄기가 붉습니다

노을이 그랬듯이
당신께서도
소리도 없이 떠나셨습니다

떠났어도
여전히
아슴 아슴 불타고 있습니다

진형곤

시인, 월간 『한국시』로 등단, 군산문인협회 회원, 시집 『나무는 모든
것 알아도 안다하지 않는다』 등 5권



Chin Hyung-gon / Trans. Kim Sok-hun

How come
the sky is redder than the heart?

Just like the love you have sowed,
like a blood vessel burning,
The end of the sky glows red.

Just like the sunset,
you left in silence,
too.

Even if you left,
it is still
burning faintly.

■ Chin Hyung-gon

Poet. Made debut through *the Monthly Korean Poetry*. Member of Gunsan Writers Association. Published 5 poetry books including *Trees Know Everything but They Don't Say They Do*.

바람, 불다

진명희

흩어진 공기를 모아
 곧추세운 몸이
 단풍잎 한 장의 무게로
 쓰러진다

휘어지지 않고서는
 타협할 수 없고
 어깨에 내려앉은
 힘을 빼지 않고서는
 결코 마주할 수 없는,

바람이 던져주는
 차가운 시선이
 남은 달력에
 말없이 꽃힌다.

진명희

2000년 『조선문학』 등단, 시집 『풍경, 시로 짓다』 외 8권 발간, 한국문학백년상, 충남문학대상, 충남펜문학상, 매현문학상 등 수상



Jin Myung-hee / Trans. Woo Hyeong-sook

Barely standing
by gathering the scattered air,
a maple leaf
falls down.

There's no compromise
without being bent.
If I don't take the strength
off my shoulders,
I'll never be able to have it.

The cold gaze
from the wind
is on the rest of the calendar
without saying anything.

■ Jin Myung-hee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in 2000 through the magazine, *The Joseon Literature*. She published nin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I Write a Poem About the Scenery*, and received the Korean Literature Centennial Award, the Chungnam Literature Award, the Chungnam PEN Literature Award, the Maeheon Literature Award, etc.

두 도시 이야기

지은경

한 나라에 두 도시가
 송곳니를 드러내고 으르렁댄다
 왼쪽은 찰나의 벚꽃잎 인연으로
 오른쪽은 늙은 시간의 도박장이
 야금야금 서로를 뜯어먹으며
 거짓과 속임수의 포복 자세다
 역사는 옐로카드로 수없이 경고하지만
 평화는 레드카드를 감추었다
 불의에 저항하던 눈동자 위로
 하염없이 부당의 빗물은 내리고
 뇌관을 터트리고 싶어 안달하는
 두 도시의 눈알과 혀를 뽑아
 침을 빨어주고 싶었다
 엘가의 사랑의 인사도
 오르페우스의 노래도
 얼어붙은 땅을 녹이지 못한다
 하염없이 얼굴을 적시는 빗줄기
 무덤 앞에서 영웅을 기다리는 국민들

지은경

시인·문학박사·문학평론가, 한국문인협회 문학정보화위원장, 국제
 펜·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현대시협24·25대부이사장, 한국문협서
 울시문학상·세계평화문화상 대상 외, 시집『오랜 침묵』 등 14권, 평론
 집·칼럼집·수필집 등 저서 30여 권



Jee Eun-kyung / Trans. Kim In-young

Two cities in a country stand in opposition
growling at each other with bared teeth;
one on the left indulged in destiny drifting like cherry
blooms,
one on the right rapt away in the gambling of old times,
both are gnawing each other little by little
in a crouching position hiding themselves with lies and
tricks

History makes a warning with the yellow cards
but a false sense of peace covers up the red cards
While the rain is pouring down unfairly
on the eyes that once have resisted against injustice
I felt like pulling out the tongues and eyeballs of the cities
and spit at them that are impatient to initiate detonators
Neither Elgar's *Love's Greeting*
nor Orpheus's music and song
can melt the frozen land
The rain keeps soaking the faces of the people
who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graves, waiting for heroes

■ Jee Eun-kyung

Poet, Ph.D. in literature, literary critic, Chairperson of Informatization committee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Board member of The PEN, Korea Center and Korean Women Writers Association, Awarded Seoul Literature Prize from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Published poetry 14 books including *A Long Silence* and 30 other books and essays.

들단풍

조혜자

살포시 찾아온 이슬 반기며
어둠에 숨었던 뿌리가 웃네
꽃잎이 열리면

구겨진 일기장을 다림질하고
돌덩이처럼 굳은 입술을 녹여
조각난 햇살 받아 모으네

바위틈에서
꽃 피운 이야기
푸른 단풍잎 위에 곱게 엮어두네

조혜자

2020년 문학시대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UPLI-KC 회원. 시집 『웃었다, 비둘기 때문에』



Cho Hye-ja / Trans. Jung Mi-seon

The roots that hid in the darkness laugh,
welcoming the dew that came gently.

When the petals unfold,

it irons the crumpled diary
and softens its hardened lips like stone
gathering sunlight in fragments.

The story of blooming
among the rocks is
delicately laid upon the green maple leaves.

■ Cho Hye-ja

Made literary debut through *Moonhak Sidae* in 2020,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and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Korea Center, Published poetry book *Laugh Because of the Pigeon*.

조미나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산들바람보다 살며시 말없이 보고 있으면
 서서히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시찰 온 두천사들이 몰려온
 사악한 무리들에게 즉시 대응하지 않은 까닭은
 어둠의 행위들이 모두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신마저 모르는 듯 악의 무리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그들의 사악성을 모두 드러내지요
 드높은 곳의 심판 주는 모든 것을 다 보고 또 보고
 대심판날에 카르마의 법에 따라 응징을하겠지요.
 숨죽이고 가만히 있어봐요
 신이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하겠지만
 우주 아카식레코드의 기록물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신은 통곡하는 혼돈을 바라보면서 먹이감을 낚아채려고
 웅크린 사자처럼 사악함이 극에 달하는 세상을 굽어보고 있
 어요.



조미나

영문학 박사, 캐나다 토론토 거주, 『시문학』 등단, 시집 『바람재』 등,
 UPLI-KC 번역위원

Cho Mi-na / Trans. The Author

Let's be silent holding your breath
If you are staring quietly more than a gentle breeze
You could see all things gradually
Two angels who visited in Sodom and Gomorrah to inspect
Are silent to the wicked villagers without any action
Because the angels tried to check the crowd's evil and
immoral behaviors.

Let's be silent holding your breath
Then the wicked go on rampage like a atheist
And they disclosure their all malicious behaviors
The Great Judge can stare at all crimes in the world
And will judge them by the law of Karma on the Great
Judgment Day.

Let's be silent holding your breath
Although they declare there is no God and God is dead
Their evil things are recorded in the Akashic Records
While God is staring at the crying and chaotic world
God watches down till the chaotic world comes to a head finally
Like a lion that is crouching to snatch a prey.

■ Cho Mi-na

Ph.D. in literature.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Published poetry book, *The Windy Hill*. Currently she lives in Toronto Canada. Member of the Korean Literary Association, the Hundaee Literary Association, Hosoe Literary Writers' Association, the Yeats Society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Literature and Religion, and the International PEN Korea Centre.

미안합니다

조남명

두 발로 혼자
 걸어 나올 수 있어
 소리 내어 웃을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이에게 미안합니다

밥을 내 손으로 먹을 수 있어
 어디든 보면서 갈 수 있어
 그렇지 못한 이에게 미안합니다

남 이야기 듣고
 내 이야기 줄 수 있어
 들어 살 수 있는
 허름한 집 한 채 있어
 그렇지 못한 이에게 진정 미안합니다

조남명

시인, 2009 『한울문학』 시 등단,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
 한국문인협회·국제PEN한국본부·국제계관시인연합 한국본부 회원,
 녹조근정훈장, 대전문학상, 대전펜문학상, 역옹인문학상, 대전펜부회장
 역임, 시집 『제 이름으로 핀 꽃』 등 7권



Cho Nam-myeong / Trans. Kim Sok-hun

I can walk out
on my own two feet.
I can laugh out loud.
I'm sorry for those who can't.

I can eat with my own hands.
I can go anywhere looking at it.
I'm sorry for those who can't.

I can tell you my story
after I listen to you.
There's a shabby house
that I can live in.
I'm really sorry for those who can't.

■ Cho Nam-myeong

Poet. Made literary debut through *Hanul Literature*(2009). Ph.D. student at Hannam Univ.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the International PEN Korea, the UPLI. Awarded Green Stripes, Orders of Service Merit, Daejeon Literature, and Deajeon PEN Literature. Vice President of Daejeon PEN. Published 7 poetry books, including *Flowers Bloomed by its Name*.

하지만

조규수

당신과 나의 만남이
내 삶의 시작이었지만
또 다른 나에게는 발원이었을지도

히히대고 소곤거리고
행복한 사람처럼 살아 왔다고 하지만
또 다른 나에게는 고통과 모방의 페르소나일지도

나이 들어 히히덕 거리며
작은 연금에 다행이라고 안심한다고 있지만
또 다른 나에게는 빈곤과 고통의 대상이었을지도

당신과 나의 삶이
끈적거림과 거미줄 같은 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나에게는 빠져 나올 수 없는 수렁이었을지도

하지만
삶이란?

조규수

2009년 월간 『시사문단』 등단, 시집 『별이 솟았다』 등. 팔달문학상, 제 7회 빈여백등인문학상



Cho Kyu-soo / Trans. Woo Hyeong-sook

My life began
when you and I met;
meanwhile, I may have cause grudges.

Giggling and whispering,
I've been living like a happy person;
meanwhile, I may be a persona of pain and imitation.

Getting older and giggling,
I'm relieved with a small pension;
meanwhile, I may have been in poverty and pain.

You and I
may have lived in a sticky, cobweb-like relationship;
meanwhile, I may have got bogged down in a quagmire.

But
what is life?

■ Cho Kyu-soo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2009 through the monthly magazine, *The Literary World with Current Affairs*. He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is poems, including *Stars Rose*, and received the Paldal Literary Award and the 7th Literary Award of the Binyeobaek Poets Group.

행복의 공식

정연덕

달은 밝게 오르고
바람 속에 흔들리다

그리움은 창을 열고
여름 속으로 뛰어내리다

너는 나의 가슴 딛고
나는 너의 꽃길 밟고 가다

두마음 한 겹으로
익어가는 가을 속에 빠지다

정연덕

월간 『시문학』 1976.3. 추천원료.(詩人). 시집 『달래강』, 『흘러가는 산』, 『고욤나무 풍장에 들다』 등 12권. 수상 「시문학상」 「오늘에 스승상」 한국PEN문학상 등. 현재 시문학회 상임지도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 충북시인협회 고문 등



Chung Yeon-deok / Trans. Kim Sok-hun

The moon rises brightly
and sways in the wind.

The longing opens the window
and jumps into the summer.

You stand on my chest;
I walk on your flower path.

I fall into autumn
ripening with a single layer of two hearts.

■ Chung Yeon-deok

Poet. Debut through *Poetry Literature*(1976). Published 12 volumes of Poetry including *Dalrae River*, *Flowing Mountain*, and others. Award of 「Poetry Literature」 「Today's Teacher」 「Korea PEN Literature」 and so on. Standing committee member of Poetry Literature Council. Advisory member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Adviser of the Chungbuk Poets Association.

늦가을 바람이 분다

정근옥

늦가을 들뜬에 바람이 분다
 금강변 저녁 하늘에
 하얀 반달처럼 살포시 사위어가는
 내 어릴 적 기억 속의 첫사랑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잔잔히 흔들린다

나를 슬프게 하는 건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아니다
 한겨울에 쓸쓸히
 흩날리는 하얀 눈도 아니다

별처럼 멀어진 그대의 까만 눈동자
 아직도 밤하늘에 반짝이고 있어서다

어두운 저녁 하늘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대를 떠나보낸 추억의 비늘들,
 눈꽃보다 차갑게 불 위에 떨어져 내리는
 아, 이 늦가을 들뜬에 바람이 분다

정근옥(호 素江)

시인, 문학비평가, 문학박사, 한국현대시인협회부이사장, 국제PEN한국
 본부감사(이사), 한국문인협회원, 『한국시』 신인상, 『교육신보』 수상으
 로 시작활동, 한국현대시인상, 교원학예술상(시부), 신문에문학상 대상
 수상외, 시집 『수도원 밖의 새들』, 『인연송』, 『자목련 피는 사월에는』 외,
 평론집 『조지훈시 연구』, 산문집 『행복의 출발에서』



Jung Keun-ok / Trans. Kim In-young

The wind blows in the field of late autumn
In the evening sky over the Geum Kang riverside
the half moon loses its light gradually
so does my first love, fading in my memory,
wavering lightly on the frozen branch

What makes me sad is neither the leaves
falling in the wind helplessly
nor the white snowflakes
drifting lonely in the middle of the winter

But your black eyes gone far away that are still glittering
like the stars in the night sky

Looking up the evening sky dark and lonely,
the memories of you I let go come alive like shiny fish scales
falling colder on the cheeks than snowflakes
Ah, the wind blows in the field of late autumn

■ Jung Keun-ok

Poet, literary critic, Ph.D. in literature. Made literary debut through *Korea Poetry* in 1993. Vice-president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Board member of The Korea PEN. Awarded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rize and many more. Published the Collection of Poems, *Birds Outside a Monastery*, *Lily Magnolia Blooming in Arl*, Critical Essays, *A Study of Cho Chi-hun's Poetry*, Essays, *In the forest of Pine Trees*.

나뭇가지 끝에 걸린 하늘

전홍구

고개 쳐들어 터져라. 외쳐 보아도
대꾸도 없는 세상을
신문과 방송은 끈질기게 흔들어댄다

가로등 낮잠에 빠져 졸고 있는 공원
그네에 몸 신고 흔들어 보아도
세상은 멈추어 있다

보고 들은 것 다 잊고 싶어
소주 한 병 통째로 훌쩍 마셔버리고
병든 세상을 몽땅 담아 병마개를 꼭 잠근다

살맛 나는 세상인데
멀리 서 있는 나뭇가지 끝에
아직도 하늘이 걸려 있다.

전홍구

시인, 수필가, 『문예사조』 시, 수필 등단(1991),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수료,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원, 국제PEN한국본부 정회원, 2024년 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환경시 문학대상 수상, 제3집 『나뭇가지 끝에 걸린 하늘』, 제7집 『나의 펜은 마른 적이 없었다』



Jeon Hong-gu / Trans. The Author

Raising my head, I shouted out to my being exhausted,
Newspapers and broadcast,
Producing persistent cacophony toward the apathetic world

The drowsy park sinking into a nap under the street lights,
Though loaded myself on a swing shaking it up and down,
The world stands still

Would like to forget all the things heard and seen,
I bottomed a whole bottle of Soju up,
Cap it with putting the whole sick world into the bottle

Notwithstanding life is good,
On the end of a tree branch from afar,
The sky still hangs.

■ Jeon Hong-gu

Poet, essayist. Made literary debut through *Munyesajo* in 1991.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Awarded Korea Ethnic Literature Grand Prize, Sejong Culture Arts Prize and many more. Published poetry book *The Sky Hanging at the End of Branch*, *Rainbow in the Dark Clouds* and more.

동백이

전영귀

열까 말까
한 달

향기 대신
화끈한 몸빛 한 달

낙화 한 달
애도 한 달

그리고...
그리고...

봄 한 달
내 가슴

붉게 붉게
적시고 간,

전영귀

국제펜한국본부 회원 외 7개 문학단체 활동 중, 영남문학시부문신인상, 남명문학상, 영남문학상, 한국꽃문학상, 경북관광문학상 수상, 김해일보 신춘문예 당선. 시집 『더 깊이 볼 수 있어 다행이야』



Jeon Yeong-gui / Trans. The Author

Shall I open it or not

For a month

Instead of fragrance

A fiery hue for a month

Falling petals for a month

mourning for a month

and...

and...

Spring for a month

My heart

Redly redly

Drenched,

■ Jeon Yeong-gui

Member of International PEN Korea Center and other 7 organizations, Rookie Literary Award from Yeongnam Literature, Nammyeong Literary Award, Yeongnam Literary Award, Korea Flower Literary Award, Kyeongbuk Tourism Literary Award, Won the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Sponsored by Kimhae Daily Newspaper. Collection of Poems : *Being Able to See Deeper is Fortunate*.

인생 통장

전 민

내 인생의 수입과 지출은
 고회를 막 넘기고 나서야
 어느 정도 셈할 듯도 한데
 여생의 잔고는 통 알 수 없네

흐른 물은 다시 역류하지 않고
 지난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추억의 카펫을 뒤밟아 가보면
 세월 속에 떠밀리어 떠나는 길

저축한 시간의 용돈이 앞으로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만
 아침에 일어나 항상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드릴 뿐.

전 민

『시문학』 등단 (1985),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호서문학회 회장(역),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역), 시집 『소원의 중』 외 14편



Jeon Min / Trans. Cho Mi-na

Although the income and the expenses
Of my life can be calculated
Just passing seventy years old
I cannot guess the balance of the rest life

Flowing water would not reverse again
The past could not come back
I tread back on the carpet of the memory
There is a path pushed back by the time

Whenever I wake up in the morning
I always find out the allowance of the saving time
Is not enough for the rest of my lifetime
I just pray for my allowance at bedtime

■ Jeon Min

He made his debut through *Simoonhak*(1985). He serves on the board member of Korean PEN, as the honorary chairman of the Hoseo Literature association, and as the vice chairman of the Korea Modern Poet Association. There are 14 poetry books, including *The Bell of Wishes*.

선풍기

장현선

뜨겁게 달아오른 열기로
달빛도 은하수 조각배에
꼭꼭 숨었을 때 너만은
바람의 노래를 발치에서
불러 주었다

창가에 나무끼는 나뭇잎은
바람에 떨어져 흐느끼지만
목마르게 타들어 간 데는
짙짙 찬바람 이다가 낡고
달아서 고개 숙인 모습은
소소한 미풍이 새벽을 깨웠다

장현선

2010년 『시의나라』 등단, 시집 『사랑의 바람』, 『비망록』, 『오카리나 소리
가』, 『영혼을 닦는 눈』, 시와 산문집 『숲의 노래』, 『피안의 언덕을 오르며』



Jang Hyeon-seon / Trans. Jung Mi-seon

The moonlight remained hidden
in the galaxy's small boat
because of the hot heat, leaving only you
to sing the song
of the wind at the feet.

The leaves fluttering by the window
fell in the wind, sobbing
as they were finally parched.
When the cold wind grows old
and worn and bows its head,
a breeze awakens the morning.

■ Jang Hyeon-seon

Jang Hyeon-seon made her debut as a poet in 2010 through the magazine, *The Land of Poetry*. She published four collections of her poems : *The Wind of Love*, *Memorandum*, *Ocarina Sound*, *Eyes Wiping the Soul*. And she published two collections of her poetry and prose : *Song of the Forest*, *Rising Nirvana Hill*.

그곳에 가면

장정순

그곳에는 고독한 연주자가 있다

나는 쓰다만 편지를 손끝으로 전해주는
속삭임이 되고 싶어 그곳에 간다

음표를 넣은

포도鋪道 위의 그리움으로
걱정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다

가로수 잎 사이로 스며드는 자유로운 바람
젊음의 광장은 늘 봄빈다

한때 화법에 서툴러서 첫 음마저
흔들렸지만

지식을 갈구하는 책을 고르며 사색을 배우는

서점 옆

그곳에 가면

굽 높은 구두의 도도한 소리마저 조울할 수 있다
이별을 도려낸 긴 편지를 쓸 수 있다

목말랐던 그리움을 넉넉히 담을 수 있다

장정순

2016년 『시문학』 등단, 대구교육대학교 졸업,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석사, 초등학교 교사 역임, 한국시문학문인회, 한국현대시인 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비평가협회 회원, 시집 『드디어 맑음』, 『그믐밤을 이기다』



If I Get There

Chang Jeong-soon / Trans. Kim Sok-hun

There is a lonely performer.

I go there because I want to be a whisper
that delivers a letter with my fingertips that I didn't
finish.

The waves of passion can be put to sleep
by the longing on the sidewalk
with the notes

The square of youth is always crowded
by the free wind seeping through the leaves of trees.

Not good at harmony at one time, so even the first
note
was shaking,

but when I get there,
next to the bookstore,

where I can learn to think, choosing a book that craves
knowledge.

I can even control the arrogant sound of high-heeled shoes.

I can write a long letter that cuts out the breakup.

I can fill up my thirsty longing.

■ Chang Jeong-soon

Jang Jeong-sun made her debut as a poet in 2016 through the magazine, *The Poetic Literature*. She has published two collections of her poems : *Finally, It's Sunny and I Win the Moonless Night*. And she received the Baek-un Literary Award, etc.

칠월 보름밤

장건섭

칠월 보름,
달밤이 참 곱다

조속하게 피어난
천변의 코스모스

칠월 보름 달밤에는
아내의 첫날밤처럼
선홍빛이다

달무리까지 진
칠월 보름 둥근 달

세상에서 가장 눈부셨던
아내의 그 빛나던
젖가슴보다
더 눈부시다

오늘밤은
그냥 자야겠다.

장건섭

1978년 『생명시』 시부문 등단, 작사가, 영화평론가. 시집으로 『소록도』, 『돌아서기』, 『단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의 서시』, 『暴食』 등 다수. 현재 한국문인협회 홍보위원, 국제PEN한국본부 세계한글작가대회 집행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및 홍보위원장, 『한글문학』 편집위원, 『불교문학』 편집국장, 미래일보 편집국장



Jang Gun-seop / Trans. Kim In-young

On the fifteenth night of July in lunar calendar
the moon in the sky shines so beautiful

Blooming earlier than expected
cosmos flowers stand outside waving on the riverside

On the fifteenth day of July in lunar calendar
the night gets imbued with the color of scarlet pink
like the night of wedding day for my wife

With the halo around the full moon
on the fifteenth night of July in lunar calendar

The moon glows most beautifully
with dazzling light
much more radiant than the breast of my wife's
that once shined so bright in the world

Tonight

I feel like I can take a sound sleep

■ Jang Gun-seop

Poet, lyricist & movie critic. Made literary debut through *Life Poetry*. Promotion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Executive committee member of The World Korean Writers Congress. Published poetry book *Soloc Island, Turning Back* and many more.

이루리라

임형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말을 듣고 자라서
또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 왔던 우리

어찌다가 쳐 놓은 철옹성 같은 삼팔선
이제는 그만 무너뜨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나 나비가 되어 보자

경도 높은 절삭공구로 자른다면
요란한 불꽃만 될 뿐
총칼이나 핵으로는 상처만 줄 뿐

금강석 같은 단단한 원석은
여린 구리로 다듬어 영롱한 빛을 내듯

명주 고름같이 부드럽고 여리고 휘어질 줄 아는
낮아지고 채워주는 물 같은 참사랑으로 녹여보자

미미한 개미도 두 개의 위장으로
하나는 나를 위해 또 하나는 남을 위해 살 듯
주고 잊어버리고 보살필 위장 하나 더 만들어 보자
햇볕이 어제든 오늘도 변함없이 나누듯
우리도 그렇게 통일을 이루어 보자



임형선

2015년 『창조문학』 등단. 시집 『또 하나의 나』, 『할인의 유혹』

Lim Hyung-seon / Trans. Woo Hyeong-sook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and get along well”
Hearing the words, we grew up;
saying the words, we have lived.

Let's break down the barrier of the 38th parallel
that seems like an iron fortress,
and let's become birds or butterflies flying free.

If we cut the barbed wire with a strong cutting tool,
we'll just see a shower of sparks fly;
guns, knives and nuclear weapons only hurt us.

Hard gemstone, just like diamond,
is trimmed with soft copper to give a brilliant glow.

So, let's melt the barrier with the true love
that seems like soft silk cloth or flowing water.

Even a tiny ant has two types of camouflage,
one for itself and the other for others.
Let's make the camouflage that we, too, give and forget.
Just as the sun shines today, too, as it did yesterday,
let's achieve our unification like that.

■ Lim Hyung-seon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in 2015 through the magazine, *The Creative Literature*, and published two collections of her poems : *Another Me* and *The Temptation of Discount*.

당신이 다녀가고

이희국

별칭게 녹슨 못을 빼려다
못대가리가 부서져 빨 수가 없자
반쯤 튀어나온 못을 두드려
아예 보이지 않게 박는다
그 위에 감쪽같이 스티커를 붙인다
나만 안다.

이희국

2017년 『시문학』 등단, 이어도문학회 회장, 한국문학비평가협회 작가상,
푸른시학상, 대표시집 『다리』, 『파랑새는 떠났다』, 『간이역에서』(영화)



Lee Hee-kuk / Trans. The Author

Trying to remove a red, rusty nail,
The head broke, and I couldn't pull it out.
Knocking the nail that sticks out halfway,
I pushed it completely out of sight.
Placed a sticker over it.
Only I know.

■ Lee Hee-kuk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in 2017. President of Jeodo Literature Association, Awarded Korea Literary Criticism Prize and Blue Poetics Prize from Si-Munhak, Published poetry book *The Scenery of Birch Trees*, *Blue Birds Have Left* and more.

바람의 길

이현서

낮선 사람처럼
겨울이 온다
차가운 바람도 절망을 품는가

바람을 헤치고
희망 고문 같은 안개 속에서
그래도 봄은 오고 있다

그리 많았던 독백의 희망 고문들
이제 와보니
오늘도 어제도 바람의 길 따라
강 언덕도 녹록하지 못한 모양이다

따뜻한 차 한잔에 마음 녹이고
돌아선 발걸음도 텅 비어 있다

이현서

2014년 『한울문학』 시 부문 등단.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역임, 열린사이버대학교 객원 뷰티 학과장 역임, 현재 서울 청담동 엘리저리 뷰티살롱 대표



Lee Hyeon-seo / Trans. Kim In-young

Like a stranger
winter comes
with the cold wind embracing despair

Even through the wind, though,
spring comes
in the fog stringing me along

All those hopes given in soliloquy, however,
turn out to be falsely set,
not strong enough to confront a river bank
on the path of the wind I always follow

Today with my heart made warm with a cup of tea
I turn back, feeling empty with heavy steps

■ Lee Hyeon-seo

Made literary debut through *Hanwool Literature* in 2014. M.A in Business Administration at Yongin Graduate School. Former professor at Life long Education Center of Sookmyung Univ. At present, CEO of Chungdam Ellisa Lee Beauty Salon in Seoul.

경물景物

이정자

파아란 물빛호수
산빛도 초록인데

펼쳐진 편더기는
안개 너울 쓰시었고

산등선
굽이진 다리
무지개로 놓였네.

이정자

야호 자현(慈軒), 문학박사, 시조문학 편집인. 시조 『기차여행』의 11권, 시조문학 제3대 발행인, 학술서: 『문학의 이해』, 『현대시조문학사』의 17권. (사)국제펜한국본부 자문위원 및 번역위원, 이대동창문인회 회장 (사)한국시조문학협회 이사장 역임. 시조문학작품상, 이화문학상, UPLI KC 번역상 외



Lee Jeong-ja / Trans. The Author

The blue water color lake,
the mount color is also green.

At the broad field spread out
and cover with the thick mist.

The curved bridge
over the mountain ridge
is set with a fine rainbow.

■ Lee Jung-ja (pen name: Jaheon)

Ph.D in literature, Publisher of the magazine, *The Sijo Literature*. Published 11 sijo collections including *Train Travel* and 17 scholarly books The 3rd president of the Korean Sijo Literature Association, Advisory committee member and transl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 PEN. Awarded Sijo literature prize and many more.

화단의 꽃

이일청

뜰 앞 화단에 형형색색의 꽃이
 오늘도 미소를 보내니
 등걸의 몸이
 온화한 고요에 젖네.

파란하늘 아래
 생을 이어가는 인연이
 화려한 꽃들로
 잠시 망각의 장벽에 싸여
 희로애락이 빠져나가
 여백이 가슴을 채우니
 순수한 삶의 길이 보이네.

꽃들의 실바람으로
 은은한 향기가 번뇌를 덮으니
 맑은 마음에 정의 별빛이 깃드네.

이일청

2016년 『한국문학시대』 등단, 시집 『노을녘 길』 등, 한국문학시대 우수 작품상 수상



Lee Il-cheong / Trans. Jung Mi-seon

Colorful flowers in the front yard are
smiling again today,
and the stump body
rests in gentle stillness.

Under the azure sky,
the lasting ties in life are
briefly wrapped in a barrier of oblivion
in brilliant blossoms.
And suddenly joy, sorrow, and sorrow fade,
and space fills the mind,
revealing the path of a pure life.

With the light wind,
a subtle scent of flowers covers the anguish,
and a familiar starlight shines in a clear mind.

■ Lee Il-cheong

Lee Il-cheong made his debut as a poet in 2016 through the magazine, *The Korean Literary Era*. He has published his collections of poems, including *Sunset Path*. And he received the Excellence Award of the Korean Literary Era.

세월의 힘

이영숙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세월은 하염없이 나를 이끌고
 어느덧 노인의 마을로 데려다 놓았네

나의 마음은

언제나 푸른 소나무인데
 나의 머릿결은
 백사장에 빛나는 은빛 모래

나의 몸은

열정도 꿈도 사라진
 하나도 바쁠 게 없는
 게으른 곰이 되었네

거울을 보지 않은 나의 얼굴은
 항상 탱글탱글한 복숭아 빛깔인데
 거울을 바라보니
 거무칙칙 주름살들이
 환영의 미소 짓고 있네

이영숙

시 등단(2012), 시집 『비 오는 날에는 커피 향이 더 좋다』(2013), 『우아한 행복』(2024), 수필 『아직도 세상은 아름답다』(2016)



Lee Young-sook / Trans. Jung Mi-seon

I have
always been there,
but the years have brought me
to the village of old age.

My heart is
is always a green pine tree,
but my hair is
silver sand shimmering on the white beach,
and my body has
become a lethargic bear
with no passion, no dreams,
or activities to keep me active.

Even if I didn't look in the mirror, my face used
to be a vibrant peach tint,
but when I look in the mirror now, the blackish
wrinkles
welcoming smile at me.

■ Lee Young-sook

Made literary debut in 2012, Published poetry books *The Smell of Coffee Is Better on a Rainy Day* in 2013 and *Elegant Happiness* in 2024, and a essay book *The World Is Still Beautiful* in 2016.

낙원

이복자

물은 옷을 입지 않은 채
 속을 보여줘야 서로 쉬인다.
 부대끼며 흘러도 처음처럼 깨끗한 알몸이면
 맑은 호수, 물의 낙원이다.
 사람은 현장에서 돌아와 현관에 신발 벗는 순간
 맘 놓고 디디면 자유를 주는
 무너짐이 아니라 힘이 솟는 곳
 웃음 피는 가족이 있으면 삶의 낙원이다.
 그늘고 째짤한 고달픔이라도 해 그늘을 고맙다 여기며
 까칠하지 않은 곳에 흘러덩 등짐 내려놓고
 알몸으로 누워 마음 펴는 곳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내가 너려니, 네가 나려니
 돈 좀 없어도 그렇게 살면 된다.

이복자

1994년 『아동문학연구』 동시 등단, 1997년 『詩마을(황금찬)』 시 등단.
 국제펜한국본부 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 역임 외, 시집, 동시
 집 『피에로의 반나절』 외 15권. 김기림문학상 외 다수



Lee Bok-ja / Trans. Kim Sok-hun

Water can mix one another
when it show the inside with wearing any clothes.
Even if it's flowing with others, If it's as clean as the
first time
it is a clear lake, a paradise of water.
When a person comes back from work and takes off
his shoes on the front door
If you feel free to step on it, you'll be free,
It's not a collapse, but a place of strength,
It's paradise of life if you have a family smiling.
Even if I am scorched with salty bitterness, thanking
for the sun shade,
I flopped my backpack on a place that's not rough
and the place where I lie naked and stretch my mind,
not fooling and not being fooled,
thinking I am you and you are me,
I can live like that even if I don't have much money.

■ Lee Bok-ja

Made literary debut as a writer of children's literature through *Korea Children's Literature* (1994) and as a poet through *Poetry Village*(1997), Board Member, International PEN Korea, Vice President, the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ublished 15 volumes of poetry *Piero's Half-Day*, Awarded Kim Ki-rim Literature Prize and many others.

홍매화

이돈배

수줍은 듯 여민 옷깃은
 숨털에 쌓여
 치마폭 감싸 안은 꽃망울로
 겨울을 나네

찬바람 눈보라에 부풀어
 깨우는 봄소식

초롱한 여울목 검붉은 자태
 잎 앞선 꽃을 맺어
 님을 반기네

산울림 소쩍새 울리는 소리에
 벌 나비 기다리는
 아기별 꽃

포근히 앉는 햇살
 훈훈한 입김으로 새순을 여네

이돈배

2010년 『문예시대』 시 등단. 2012년 『문학미디어』 평론 등단. 시집 『카오스의 나침반』 등. 한국현대시작품상 등 수상



Lee Don-bae / Trans. Woo Hyeong-sook

Properly dressed with shyness,
enclosed by hairy sepals,
the flower buds in the green skirts
survived the harsh long winter.

Having grown in the cold wind and snowstorm,
they wake up with tidings of spring.

Oh dark red appearance by the sparkling stream;
the flowers are in bloom before the leaves,
welcoming you.

With the sound of scops owls hooting in mountains,
the flowers, resembling baby stars,
wait for bees and butterflies.

The sunlight shines down;
new buds open with the bright warm rays.

■ Lee Don-bae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2010 through the magazine, *The Literary Era*, and as a critic in 2012 through the magazine, *The Literature Media*. He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is poems, including *Compass of Chaos*, and received the Korean Modern Poetry Award, etc.

산티아고 순례

윤유점

믿음이 짓밟혀도
운명이라 생각했다

빛 잃은 무명처럼
처연하게 먼 길 돌아

비로소
마지막 안식

고즈넉한
바람길

허방에 떠있는
빈 발자국

가벼운 발걸음
생의 끝을 버렸다

윤유점

2018년 월간 『시문학』 등단, 시집 『살아남은 슬픔을 보았다』 등, 제24회 한국해양문학 대상 등 수상



Yoon Yoo-jeom / Trans. Woo Hyeong-sook

I thought it was fate
even if my faith was trampled on.

Fading into obscurity,
I walked a long way in sorrow.

At last
I feel a sense of relief.

Along the windy road
that's quiet and calm,

my empty footprints
are floating in the air.

With light steps,
I hold on to the end.

■ Yoon Yoo-jeom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in 2018 through the monthly magazine, *The Poetic Literature*. She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I Saw the Sadness That Survived*, and received the 24th Korean Marine Literature Award (grand award), etc.

짜사랑 회억

윤기관

잠자리도 앓길 꺼릴
잡풀 무성한 골목

인기척도 말라버린 채
거미줄만 뒤엉킨 처마

검버섯 질게 번지고
쓰러질 듯 지쳐가는 담벼락

누굴 기다리나
감나무 너머 쭉 고개 내민 석류

낮달이 하얗게 윤슬이 되어
눈시울 붉히는 그리움인가

회억만 무성하게 지키는
그,
짜사랑 골목

돌샘 윤기관

시인, 수필가, 국제펜한국본부, UPLI한국본부,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수필문학기협회, 사진작가, 여행작가, 수필문학천료작가회 회원, 수목산수화 및 목판화 화가



Yun Ki-kwan / Trans. Kim In-young

The alley with weeds only growing thick
where even dragonflies dislike to fly down

The eaves of a roof with spiderwebs only entangled
where no traces of human presence can be found any more

The wall standing almost crumbled down
where sooty blotches are spreading on

Who does a pomegranate wait for
sticking out its crown on the head over a persimmon tree?

The moon in daytime lets white ripples spread on my face;
I wonder if they are making my eyes red with longing

In the alley
still
with full memories of unrequited love

■ Yun Ki-kwan (pen name Dol-Sam)

Poet, essayist, photographer. Made literary debut as a poet through *Poetics and Poetry* in 2020 and as an essayist through *Korean Essay Literature* in 2022. Member of International PEN Korea, The Korean Modern Poets Association, The Korean Essay Literature and UPLI-Korea Center.

별

유재봉

지상의 못사람들 눈빛을
다 모으면 저만한 광도가 될까

강해도 아프지 않는
추억같은 평안

한참을 보노라면
여러 색깔의
꽃잎이 튀어나온다.

부르는 이 없는데
노래가 들린다.

빛과 노래와
끊어질 듯

응시하는 눈을
때문은 나로는
쳐다보기 어렵다.

마음을 가볍게 띄우는
낮선 먼 곳으로
풍선을 잡고 떠난다.

유재봉

1989년 7월 『시대문학』(성춘복) 7월호 신인상 등단, 시집 『시간의 매듭』의 8권, 대전시인협회장상, 대전시문화상 수상



Yoo Jae-bong / Trans. Kim In-young

All the lights shining out of our eyes gathered together,
I wonder, can make that much brightness of a star

Comforting me
like reminiscence strong, not painful, though

While looking up the star for quite a while
I see various colors of petals
jumping out of the eyes of the star staring at me

I can hear
the songs nobody seems to sing

Lights and songs coming towards me
almost being about to break off

It's hard for me
as impure as I am
to keep watching the staring eyes of the star

Setting my heart afloat lightly
to leave for a strange place
holding a balloon string

■ Yoo Jae-bong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dae Munhak*, winning the New Poet Prize in 1989. Published 8 poetry books including *Ties of Time*. Awarded Daejeon Poets Association Prize and more.

서봉총瑞鳳冢 금관

오현정

꿈만 같다

머나먼 동양의 나라 경주 노서동 고분 발굴현장에서
 삽을 들고 인류의 조상들이 먼저 나누었을 우정의 흙을 어루
 만진다

금관을 품고 침묵하다 못해 말하는 흙을 붓끝이 떨어지며 털어낸다
 가지마다 세 마리 봉황이 곡옥을 흔들며 깊은 잠에서 깨어나
 시슴뿔은 오래 전부터 나와 꿈속에서 친구였다고 손을 잡는다
 ‘나는 스웨덴의 황태자 구스타프 아돌프 6세’ 라고 하자
 ‘당신은 이제 동서양을 횡단하는 진정한 고고학자’라며
 스웨덴의 상징인 서瑞

금관의 세 마리 봉황의 봉鳳

신라 왕족들의 또 다른 황금나라 총塚의 기념을 위해
 이곳을 서봉총이라 하십시오

손 사례도 사양도 발굴단장 고이즈미 앞에선 소용없다

그는 야망대로 평양박물관장이 되었고

파란만장波瀾萬丈을 겪은

서봉총 금관은 1963년 1월 21일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되었다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전생과 후생의 인연을 기다린다

오현정

1978년, 1989년 『현대문학』 2회 추천 완료로 시 등단. 『한국힐링문학』 수필 등단. 시집 『지금 가장 좋은 때』 등 10권. 동시집 『리나, 고마워』, PEN문학상 등. 비평가협회 부회장 역임. PEN 이사, 현대시협 이사.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 및 심의위원. 숙대문인회 회장.



The Gold Crown from Seobongchong Tomb

Oh Hyun-jung / Trans. Kim In-young

It is like a dream

At the excavation site of an old tomb in Gyeongju in
the country of the East

archaeologists holding trowels felt the earth of friendship
shared by ancestors

brushing off the soil that had buried a gold crown in
silence until it spoke.

Three phoenixes awoke at the branch of the crown
decorated with jade beads

grabbed our hands as a gesture of friendship that had
been kept for so long.

“I am Gustaf Adolf the 6th, the Crown Prince of Sweden,”
an archaeologist introduced himself,

to which the head of excavation, Japanese archaeologist
Koizumi, responded,

“you are the real archaeologist both in the West and the
East,”

and suggested the name of the tomb, Seo(瑞), Bong(鳳),
Chong(冢),

each representing Sweden, Phoenix, and Tomb in Chinese
character.

That's how the tomb got the name after humble declines
of others

Later, Koizumi became the director of Pyongyang Provincial Museum.

Since then, after years of good and bad times, the Gold Crown

was designated as national treasure on January 21, 1963,

Currently, it is in National Museum, waiting for the meeting of people from the past and the present

■ Oh Hyun-jung

Made her debut as a poet through *The Modern Literature* in 1978 and 1989 and as an essayist through *Korea Healing Literature*. Published 10 poetry books including *Now is the Best Time*. Former vice-president of Korea Criticism Association. Board member of The Korea PEN. She received the Yeong-rang Literary Award, the Ae-ji Literary Award, etc.

상실의 시대 · 7

- 그리움

오종민

자식들 찾아올 때 가지고 온
 홀로 남은 늙은 어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돌아갔지만
 그들을 향한 어미의 그리움은
 고스란히 남겨 두고 떠났다

다시 홀로 남겨진 처절한 고독과
 손주들이 덤으로 남긴 그리움이 더하여
 텅 빈 가슴속 횡하니 찬바람 지나갈 때
 주름진 뺨에 강물이 흐른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때까지 살아 있기는 한 걸까
 한없는 그리움이 점점 깊어만 간다.

오종민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 국제
 PEN한국본부, 필동인, 문예춘추 회원, 제27회 영랑문학상 수상. 고려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선경(現SK) 과장. ㈜갑을 부장, 충남방직
 ㈜ 베트남 호찌민 영업소장 역임, 시집 『노을』



– longing

Oh Jong-min / Trans. The Author

The children went back with the regret for their old
mother left alone

That they had brought with them when they came to
visit, but

They left the mother's longing for them intact.

A river flows down the wrinkled cheeks when the
cold wind blows through the empty heart,

Caused by the desperate loneliness of being left alone
again

And the longing for the grandchildren in addition.

When will it be possible to see them again?

Will she be still alive by then?

The endless longing grows deeper and deeper.

■ Oh Jong-min

Poet. Graduated Korea University, majored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rved as manager at SK group, as general manager at Kabul group, as head of sales office at Choongnam Vietnam.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Won *Youngrang Literature Award*.

인생사 새옹지마

오광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사
 꽃길인 줄 알고 살아온
 지난 세월 다 부질없구나
 기다려 주지 않는 세월 앞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아닌가
 바람같이 물같이 세월따라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바람아 바람아 멈춰다오
 지나온 세월 아쉽기만 하구나
 지난 세월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름다운 꽃길 만들어 볼 텐데
 남은 여정 길엔
 무지갯 빛으로 물들어 가고 싶다

현천 오광자

『문학저널』(2007) 등단. 용인대 회화학과 졸업. 현대시인협회 이사, 국제 PEN 한국본부 이사. 시집 『봉황 날다』, 『꽃을 심다』, 『꽃을 가꾸다』 등 문학저널 신인상, 계간문에 문학상



What's Evil in Life Can Turn Out to Be
a Blessing in Disguise

| 141

Oh Kwang-ja / Trans. Kim In-young

We come around empty handed in life
and go around empty handed, too
I realized the past years turned out to be futile after all
even though I believed I had lived a good life
Facing time running and never waiting for us
it's impossible for us to know what comes next
After living like the wind and the water following the time
now I come to know where I am getting at
Oh, wind! Please, stop blowing
It's so much regretful to have lived such a life
I could make a beautiful life if I returned to the time
in the past
On the journey of a life left to me
I hope to live walking in the beautiful light of a rainbow

■ Oh Kwang-ja (Hyun Chun)

Made literary debut through *Literature Journal* in 2007. Graduated Yongin Univ., majoring in painting. Board member of Modern Poets Association & International PEN, Korea Center. Published poetry books *A Phoenix Flies*, *Planting Flowers*, *Growing Flowers*. Awarded Literature Journal Prize for New Writers, Quarterly Literature Prize.

꽃피는 서랍

연명지

서랍 밖이 그리운 꽃무늬 옷들 서로의 냄새로 봄을 주고받으며
달맞이꽃 피던 시절을 중얼거린다

한 계절을 지나온 어제의 울음이 차곡차곡 접혀 빛이 바래도
꽃은 꽃이다

지금 꽃은 다른 얼굴을 하고도 꽃시절이다

그녀의 하얀 얼굴을 웃게 하던 꽃무늬 잠옷, 얼룩을 품은 어
떤 꽃들

빨강색 립스틱을 들고 거울을 본다

봄날에 잃어버린 사람들 서로 다른 하늘에 잇대어 닳아가고
피고 지는 것들이 두 눈 가득 차오른다

꽃들이 돌아눕는 새벽 몰래 서랍을 빠져나간 낡은 진달래꽃
이 바스락 눈물을 쏟는다 서너 명의 엄마가 서랍을 떠나지 못
하고 봄마다 꽃망울을 피워낸다

엄마를 벗고 부활한 꽃들, 본래 엄마는 꽃의 뿌리여서 봄마
다 홀로 눈부시다

연명지

2013년 미네르바 시선으로 『가시비』를 출간하며 문단 활동 시작. 『사과
처럼 앉아있어』 출간. 전자시집 『열일곱 마르코 폴로 양』. 2023년 호미
문학상 은상 수상, 경북일보 청송객주문학상 수상



Yeon Myung-ji / Trans. Kim In-young

Missing the outside of the drawer, clothes with floral patterns
murmur themselves about the time evening primroses bloomed,
exchanging their scents in spring

Flowers are still flowers although they are faded in time
with the cries repeated over the past while passing a season:
flowers at present are in their prime time with different faces

On the night clothes with floral patterns that made mothers
smile, some of the flowers with smudges on them holding
red lipsticks look into the mirror

Those missing people I lost in spring days are coming to
resemble each other in the sky; the flowers blooming and
falling get into the eyes like tears welled up

When flowers turned over on the side at dawn, worn-out
azaleas sneaking out of the drawer cry out while some of
them left behind are bringing forth the flower buds

Flowers brought back to life shine in spring for they have
their own mother in their roots

■ Yeon Myung-ji

Made literary debut through *Minerva Collection of Poems* with her poem "Rain of Thorns,"
Published poetry book *Sitting Like an Apple*, Awarded Homi Literature Prize & Chung Song
Gaekju Literature Prize.

버클리 늦가을

- 캘리포니아 시편(16)

양왕용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그냥 지나치고
 베이 브리지 건너 지척에 있는
 UC 버클리의 도시, 버클리 들어간다.
 모두들 천사 찾아가
 고요 속에 더욱 고요한 추수감사절 오후
 대학 종탑과 본관
 그리고, 단풍 든 숲 배경으로
 사진 몇 장 찍는데
 대학생들과 히피들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인 가게 간판 몇 군데 걸린
 정문 앞 거리 지나
 부자들만 산다는 리치몬드 언덕까지 올라가
 건너편 금문교 바라본다.
 천사들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이 언덕에서
 단풍 든 나무 사이로 떨어지는
 붉은 해와 더불어
 더욱 붉어지는 금문교
 한참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양왕용

문학박사. 1966년 김춘수 시인 3회 천료(월간 시문학)로 데뷔, 시집 『천
 사의 도시, 그리고 눈의 나라』 외 8권, 연구 논저 『한국 현대시와 토포
 필리아』 외 8권, 부산시 문화상(문학부문)의 8개 수상, 한국문인협회 부
 이사장,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장 등 역임,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현대시인협회 명예이사장, 동북아기독교작가회의 한국 측 회장



Late Autumn at Berkeley

| 145

– California Poetry(16)

Yang Wang-yong / Trans. Kim In-young

Passing by San Francisco,
the city of Saint Francis,
going over the Bay Bridge close to Berkeley
we arrived at the city of UC Berkeley
In the afternoon of Thanksgiving Day
even more quiet than usual
as if everybody were gone to meet angels
we couldn't see any student or hippies at the campus
while taking pictures of the belfry of the university
and of ourselves with the tinged foliage in the background
Passing by the streets in front of the main gate of the university
where several Korean stores were located
we climbed the Richmond Hill known for rich neighborhood
and saw the Golden Gate Bride across the strait
Standing on the hill
without catching a glimpse of angels
we looked for quite a while at the sun
setting behind the tinged leaves of trees
and the Golden Bridge
imbued with warm red light of the sunset

■ Yang Wang-yong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in 1966. Professor emeritus of Busan Univ. Former president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Former vice-president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Published 8 poetry books including *City of Angel* and *The Country of Snow* & 8 works of criticism including *Modern Poetry in Korea and Topophilia*. Awarded Si-Munhak Prize, Busan Culture Prize, and more.

구름 조각배 있다면

양영숙

하늘 맑은 날
하얀 뭉게구름 등실 떠돌면

뭉게구름 조각배 타고
훨훨 날고 싶다

나도 내 부러진 날개 펼쳐
화려한 탈출을 꿈꾸어 본다

구름 타고 훨훨 날아
그리운 사람들과 못다 한 정
밤이 새도록 나누고 싶다

저 구름 조각배 있다면

양영숙

『현대문학사조』 등단 (2017년), 전북문인협회 회원, 시집 『그리움 홀로 두다』 등 출간



If Only I Had a Small Cloud Boat

| 147

Yang Young-sook / Trans. Jung Mi-seon

On a clear day,
when white clouds float in the sky,

I long to fly freely
in a little cloud boat.

I also dream of a spectacular escape
spreading my broken wings.

I wish I could sail on the cloud boat
to meet those I've missed
and share affection all night.

If only I had that little cloud boat.

■ Yang Young-sook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in 2017 through the magazine, *The Modern Literary Trend*. She is a member of the Jeonbuk Writers Association. She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I Leave Longing Alone*.

어뜨케 헤어져요

- 남북재상봉 부부를 보며

안혜초

얼마나 보고 싶던 그 얼굴인가

얼마나 듣고 싶던 그 음성인가

50여 년간의 기다림에 지치고 지쳐

50여 년간의 그리움에 지치고 지쳐

이미 하이얗게 재가 되어버린

가슴 속의 불씨이긴 하드래도

이미 까아맣게 숯이 되어버린

가슴속의 꽃씨이긴 하드래도

이제 가면 다신 또 만나볼 수 없을지도

모를 내 평생 단 하나 당신인데

이제 놓치면 다신 또 잡아볼 수 없을지도

모를 내 평생 단 하나 여보인데

단 한 번의 피울음을 쏟아내기 위해

지상에 태어난 가시나무 새이런 듯

- 정말 어뜨케 헤어져요

- 정말 어뜨케 헤어져요

할 수 있는 말이란 오직 단 한 마디
하늘도 땅도 피멍든 가슴이 되어

안혜초

1967년 『현대문학』 3회 천료, 한국 PEN 자문위원, 세계 여기자 작가
한국지부 부회장 역임, 시집 『꿀, 레몬, 탱자』, 『달 속의 뼈』, 『푸르름
한 줄』, 외 다수, 수상 PEN문학상, 윤동주 문학상, 영랑 문학상 외 다수



How Can I Part Again to Live Apart from You?

– Witnessing a Reunited Couple of
North and South Korea

Ahn Hye-cho / Trans. Kim In-young

How long I have been longing to see the face
How long I have been longing to hear the voice

Too tired to wait for it over 50 years
Too tired to long for it over 50 years

Still retaining the embers kept in the heart
already turned into white ashes

Still retaining the flower seeds kept in the heart
already turned into black charcoal

If I barely have a chance to see you again
how can I let go of the only love of my life?

If I hardly have a chance to hold your hands again
how can I let go of the only love of my life?

I feel like I am a thorn bird born here
to burst into a flood of tears just once

How can I part again to live apart from you?

How can I part again to live apart from you?

All I can say is the only one phrase

echoing the bruised heart of the sky and the earth

■ Ahn Hye-cho

Poet. Made literary debut through *Hundai Munhak*. An ex-journalist (Former vice-president of World Women Journalists/Writers at Korea Branch). Advisory member of Korea PEN. Published The Collection of poems : *Oranges · Lemons · Tangerines*, *Bones in the Moon*, *In the Alive Things* and others. Awarded The Korea PEN Literature Prize, Yun Dong-Ju Literature Prize, Young Rang Literature Prize and many more.

손맛

안시찬

장독에 손을 자주 적셔야
 장맛을 내지 손맛인데
 어머니의 혼잣말이
 봄바람처럼 지나간다

햇살이 눈부시게 터진 날
 아름드리 장독 물로 씻고
 마른행주로 닦으며
 숨구멍을 틱워낸다

어머니의 눈길이
 봄별으로 나를 다독인다
 책가방 휩 던져 놓았다가
 도시락이나 덜렁 집어넣고 가면
 어디 책들이 반갑다고 하나

그것들도 주인 손맛 자주 봐야 제맛을 내지
 어서 들어가 문 닫아라 바람 들라

안시찬

시인,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시집 『칼의 뼈』 외. 서울지하철
 역 詩 「북한산 매미」 게재



Ahn Si-chan / Trans. Kim Sok-hun

I need to often soak my hands in the crock of soy sauce
to make it taste good because it's handmade.

My mother's talking to herself
is passing like a spring breeze.

On a dazzling day of sunshine
I was opening the breathing holes,
washing the giant crock up with water
and wiping it up with a dry dishcloth.

My mother's eyes
comforts me up with the spring sun.
When I threw my school bag away
and put my lunch box in there,
were the books glad to see me?

Those also taste good when I often soak my hands in them.
Go in and close the door so you don't get the wind in it.

■ Ahn Si-chan

Poet, Essayist, Board member of International PEN Korea, Published Poetry book
『*Bones of the Knife*』 and many others. His poem 『*Cicada at North Han Mountain*』 was
chosen for poetry display at Seoul Subway Station.

새로운 길

심상옥

내가 봄날의 들판처럼 노랑이었을 때
 지리산 자락 생강나무도
 노란 꽃망울을 터트리며 봄을 읊는다
 그 기억들은
 제 각각 삶의 뿌리가 되고 양분이 되었다
 그래서 봄은
 노랑만으로 이 세상을 적시고 싶어한다

내가 여름날 나무처럼 초록이었을 때
 금계국 줄기에 맺혔던 물방울이 은구슬 구르듯
 샛노란 꽃으로 피어서 눈동자에 맺히는데
 사계가 지나가는 동안
 가장 낮아질 때 사랑하라
 피약별 내리긋는 한 여름
 싱그러운 나뭇잎도 혈떡거리는 삼복더위에도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며 생을 가꾸는 것처럼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온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은혜가 은혜에 겹쳐진 판도라 상자 같은 세상
 제각기 다른 속도로
 나아가는 방향도 다른 사람들의 길
 그 길은 오늘의 부름에 응답하고

새로운 길이 있을지도 모를
별 같은 길

심상옥

예술박사. 한국여성문학인회 이사장 역임. 현재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시집 『오늘과 내일 사이』, 『지금 오는 이 시간』 등. 한국문학상, PEN문학상, 노산문학상 등 수상



A New Path

Shim Sang-ok / Trans. Kim In-young

When I was all in yellow like the field in spring
ginger plant's leaves growing at the foot of Jiri mountain
were singing for the spring with the buds bursting in
yellow

and the memories of those days became
the roots of my life nurturing me to mature
So was the spring around me
always wanting to soak the world in yellow only

When I was all in green like threes in summer
water droplets hanging like silver beads on the stems
of coreopsis

turned into bright yellow flowers blooming on the
pupils of the eyes

and I spent four seasons to learn a lesson:

I should love even when I get to the lowest point of
time and place

Amid the summer under the blazing sun

when refreshing leaves of trees are gasping in the
hottest heat waves

always comes an opportunity to get over the crisis

like the one wood peckers wait, pecking trees so hard
to make a living

Even in the world like a Pandora's Box, lying leads to
more lying,
covering up brings about another cover-up,
there exist many different paths for different people
who walk toward the direction in life with the speed
of their own
corresponding to the calling of the day on the way
hoping that they would walk some day soon
a new path that would be shining like stars in the sky

■ Shim Sang-ok

She has a Ph.D. in Art. She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Female Writers Association. Now she serves as the vice-president of International PEN-Korean Center. She published many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Between Today and Tomorrow* as well as *At this time*. She received the Korean Literary Award, the PEN Literary Award, the Nosan Literary Award, etc.

로렐라이 언덕에서

신영옥

라인강 언덕 로렐라이 절벽에서
 금빛 머리 찰랑대며
 아름다운 여인이 부르던 노래

지나던 뱃사공들이 냇을 놓고 바라보다
 수많은 사공들이 강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는
 그 언덕을 찾아 나선 길

굽이쳐 흐르는 강물은 말이 없고
 하이네* 시에 곡을 붙인 노래만이
 애뜻한 이야기로 전설처럼 남겨져 오는 것을

싸늘한 동상으로 만난 차디찬 그녀가
 사공들 영혼에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시 한수 읊으며 나는 떠나네
 사노라면
 만나고 헤어짐이 너 뿐이겠는가
 잘 있거라,
 로렐라이 언덕에서 노래하던 여인아
 아름다운 로렐라이 언덕아.

* 하이네 : heinrch heine(1797~1856) 유대계 독일인. 시인

신영옥

시인, 아동 문학가, 인문학 연구원, 시집 『스스로 깊어지는 강』 외 다수, 신영옥 작사가곡선집 1,2,3,외 다수, 한국문협, 국제 펜, 한국현대시인협, 한국신문예,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 등, 영랑문학상, 한국문협동작문학대상, 한국가곡예술인상, 한국아동문학상 등



Shin Young-ok / Trans. Kim In-young

At the rocky cliff of Lorelei on the bank of the Rhine River
a beautiful maiden was believed to sing a song
with her golden hair wavering in the wind

On the way to visit the hill of Lorelei
I heard so many fishermen enchanted by the songs
were led to be drowned in the river water

The meandering river runs in silence
while the songs composed with Heine's lyrics* have been left
telling us the heartbreaking stories as in a legend

Wishing for the maiden I met in the form of a cold statue
to give the warm consolation to the spirits of dead fishermen
I am leaving the place, reciting an improvised poem of mine:
Living a life
you are not the only one I met and left behind
Good bye, a legendary maiden
who used to sing the songs on the rock
of the beautiful hill of Lorelei

* Heinrich Heine (1797-1856): Jewish German Poet

■ Shin Young-ok

Poet, writer of children's literature, researcher of humanism.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International PEN, Korea Center. Published poetry book, *The River Getting Deeper by Itself* and more, 3 Collections of Art Songs written by the poet and more. Awarded Young-rang Literature Prize and many more.

폭설

신경희

폭설이 없는데
 폭폭 빠져든다.
 어둠 속에 빠지고
 수렁 속에 빠져들고
 어느새 고독 속에 빠진다.
 백혈구 치수 낮으니
 외출은 금지다.
 사람 만나는 것도 금지다.
 모든 것이 멈추고
 침대 위에
 하얀 눈만이 수북이 쌓인다.
 한여름 밤 투병은
 폭설을 맞은 겨울나무
 시린 발이 폭폭 빠진다.

우련(祐練) 신경희

문학박사, 2009년 『서정문학』 등단, 시집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한 스무날 눈이 내렸으면 좋겠다』 등



Shin Kyung-hee / Trans. Woo Hyeong-sook

There's no heavy snow,
but my legs sink deep into the snow.
I fall into the darkness
and into a quagmire.
Before I know it, I fall into solitude.
I'm not allowed to go out
because my white blood cell size is low.
It's also forbidden to meet people.
Everything stops moving;
only white snow seems to pile up
on my bed.
Fighting against my disease on a midsummer night,
I feel like I am a winter tree in the heavy snow.
My cold feet fall into the snow.

■ Shin Kyung-hee

Doctor of literature.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through the magazine, *The Lyrical Literature*, and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I Wish Such a Person* and *I Wish it Snowed for About 20 Days*.

떡단감*

손수여

겉은 이리도 고운데
속살은 마카 멍 덩어리

고통을 얼마나 견뎠으면
까만 멍으로 채웠을까.

인고는 멍으로 남고
희생은 빛이 되나 봐.

* 떡단감은 늦가을에 익어 겉은 곱이 고와도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데 속살은 검은 점이 콧콧 새카맣게 박힌 단감입니다.

손수여

문학박사. 『시세계』, 『한국시학』 시, 『월간문학』 문학평론 등단. 시집 『성스러운 해탈』, 『숨결, 그 자취를 찾아서』 등 8권. 평론 『매한 윤봉길의 문학사적 위상 조명』 외.



Son Soo-yeo / Trans. Jung Mi-seon

It looks so good on the outside,
but the flesh is all bruised.

How much suffering caused it
to develop black bruises across its body?

Long-suffering seems to be a bruise,
and sacrifice light.

* Sweet persimmon is one that ripe in late fall and it's famous for the sweetness and, especially, for the tiny black spots in the flesh.

■ Son Soo-yeo

Ph.D. in Literature, Made literary debut as a poet through the *Si-segae* and the *Korean Poetics*, and as a literary critic through *Wolgan Moon-hak*. Published eight collections of his poems, including *Sacred Liberation*, and *Breathing, Finding Its Trace* and a Critical book *Study on the Status of Maeheon Yoon Bong-gil's Literary History*.

덮는

성숙옥

눈이 편지를 쓴다
 지금 이 순간 하염없이 내리는
 저 점선의 행간을 따라가면
 붉게 밑줄 친 그대가 있을까
 내 속에서 사슬로 이어지는 생각이
 그 사이를 꽃잎처럼 훑날린다
 꽃핀 날만이 사랑이라
 매운바람으로 뒤엎기고 풀어지는
 뒀안도 있다
 꽃 진 마음이 덮인다
 세상의 경계를 하얗게 지우면서
 하지만 내가 덮는 그대는
 자꾸만
 눈발에 붉은 찢레 열매로 솟아
 거기
 내 발자국 찍히겠다



성숙옥

2012년 시문학등단, 시집 『달빛을 기억하다』

Seong Sook-ok / Trans. Kim Sok-hun

The eyes are writing a letter.
At this moment, if I follow between the dotted lines
that are endlessly falling down,
will there be you that are underlined in red?
The thoughts that lead to a chain in me
are scattering between those lime petals.
Is it love on a day only when flowers bloom?
There's also a backyard
that was tangled up and loosened by the bitter wind.
My heart with the fallen flowers is covered,
whitening out the boundaries of the world.
But you whom I am covering
keep on rising as red brier berries in the snowfield,
so my footprints will be imprinted
there.

■ Seong Sook-ok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in 2012. Published poetry book *I Remember the Moonlight*. Awarded The 16th Blue Poetics Prize.

거울 앞에서

석미애

화장을 합니다.
 마음의 날씨는
 내 얼굴의 기초화장입니다.

두꺼운 구름 회색인 날엔
 화사한 색 묻힌 붓으로
 아이새도와 볼터치 하여
 하늘과 어울리게 합니다.

파아란 하늘 뭉게구름
 거울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날엔
 차분한 색으로
 파운데이션과 립스틱을 하고
 에머랄드 빛 귀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웃을 일 지금은 없는데
 팬스레 입술 당겨 웃어 봅니다.
 행복한 모습, 예쁜 모습
 하루 종일 착각하고 싶습니다.

석미애

시인, 수필가, 한국문인협회·한국현대시인협회·국제PEN한국본부 회원, 시집 『아네모네는 속삭입니다』



Seok Mi-ae / Trans. Kim In-young

I am putting on makeup
The condition of my mind becomes
a makeup base for my face

On a thick cloudy day all in gray
I use a brush dipped into a bright color
applying eyeshadow and blush on the face
to make the tone match with the sky in my mind

On a day blue fluffy clouds in the sky
get deep down in my mind
I apply foundation and lipstick
in a soft plain color
before fiddling with the jade earrings of mine
Despite having not much to smile about these days
I try to make myself smile in vain
As beautiful and happy as I hope to be
I like to be mistaken for a whole day even in delusion

■ Seok Mi-ae

Poet, essayist,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 International PEN, Korea Center, Published poetry book *Anemone Whispers*.

휘바람 소리

서근희

슬픔의 시작은 눈물이지만
 눈물의 끝은 용기입니다

용기엔 희망의 풍선이 매달려 있어
 갈비뼈 사이로 흥겨운
 휘파람 소리가 났어요

하루에 몇 번이고
 들리는 휘바람 소리는

살다 보면 쥐구멍에도 별 들 날 있단다
 하늘나라에서 들려주시는 어머니의 노랫가락인 것을

어머니 돌아가신 그때 그 나이
 나도 되어서야
 이제 들렸습니다

항목 서근희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졸업, 한국현대시인협회 시인상 수상, 시집 『햇살 고인 자리』, 『햇살 담아드려요』 등



Seo Geun-hee / Trans. Jung Mi-seon

Sorrow begins with tears,
but those tears end with bravery.

Courage has a balloon of hope hanging from it,
and a cheerful whiffle emanates
from the ribs.

I realize the soft sound I hear
several times a day

is the tune of my mother in heaven,
reminding me that every dog has his day.

It is at that age
when my mother passed away
that I now hear this tune.

■ Seo Geun-hee

She graduated from the food and nutrition department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he received a literary award from the Korean Modern Poets Association, the Gyeonggi Literary Grand Award, etc. She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Where Sunbeams Stay* and *I'll Put in Sunbeams for You*.

내 안의 꽃

사위환

깊은 고요 내려앉아
은은 정적 나를 감싸네
흐릿한 그림자 사라지고
내 안 속삭임만 들려

생각 감정 꿈 희망
꽃잎 피어 내 안 가득
나를 들여다보며 이해하고
모든 걸 받아들이네

나비 변신 날갯짓
진정한 행복 찾았네
내 안의 꽃 영원히
향기를 품고 피어나리

사위환

법학석사, 2015년 『화백문학』 등단, 현대시협 회원, 신문에 회원, 부천
문인회 이사



Sa Wee-hwan / Trans. Woo Hyeong-sook

A deep silence comes down,
gently wrapping around me.
Blurry shadows disappear
and I hear only the whispers inside me.

Thoughts, emotions, dreams and hopes
bloom like flowers inside me,
look into me, understand me,
and accept everything.

Like the butterfly fluttering its wings,
I have found true happiness.
The flower inside me
will bloom forever with a scent.

■ Sa Wee-hwan

Master of Law.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2015 through the magazine, *The Hwabaek Literature*. He is a member of the Korean Modern Poets Association and the New Literature Society. He serves as a board member of the Bucheon Writers Association.

달맞이꽃

변희자

산비탈 숲길에
 안개꽃 피어나면
 배시시 실눈 곱게 뜨는
 달맞이꽃

하늘 은하수 물결 위에
 달그림자 아롱지면
 설핏한 춤사위로 달빛 타는
 달맞이꽃

새벽 풀숲에
 하얀 이슬 맺힐 즈음
 임의 눈에 아롱지던
 달맞이꽃 고운 얼굴

낮달 품에 안겨
 그 얼굴 단꿈을 꾸다.

변희자

시인, 수필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한국신문예문학회 회원, 한국국보문
 인협회 회원,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



Byun Hee-ja / Trans. Kim In-young

If mist flowers bloom in fog
on the forest path in a mountain slope
evening primroses open their half-closed eyes
with a glimpse of smile

If the shadow of the moon sprinkles
on the hazy waves of light in the Milky Way
evening primroses follow the moonlight
dancing lightly and shyly

About the time dazzling dewdrops form on the leaves
in the grass thicket at dawn
the beautiful face is dappled in the eyes of lover
looking like an evening primrose blooming

Embraced in the arms of the moon at daytime
I am having a sweet dream of the face

■ Byun Hee-ja

Poet, essayist, Disabled person activity supporter, Member of Korea Sinmunye Literature Association & Korea Gookbo Writers Association, Awarded Seoul Mayor's Citation,

모였다

백혜옥

지하철 3호선 대화 방향을 타고
 충무로에서 내려 4호선 진접 방향 환승
 혜화역 2번 출구로 나왔다

마로니에 공원에
 함께 익어가는 얼굴들 모였다

김소월 집터에 진달래꽃 뽀얏다

나도
 봄을 피울 수 있을까



백혜옥

시인, 화가, 『시와 정신』으로 등단(2010), 시집 『자작나무 숲에 들다』 외

We Gathered Together

| 175

Baek Hye-ok / Trans. Kim In-young

Having taken the subway line 3 bounding for Dahwa
Station,

I transferred to line 4 at Chunngmuro station,
and I got out of the subway through Exit 2 at Hye-hwa
station

Finally at Marronnier Park
we gathered together with the faces familiar and well ripen

White azalea flowers are in full bloom
at the site of the poet Kim So-wol's old home

I wonder
if I can bring forth the flowers in the spring of my own

■ Baek Hye-ok

Poet and painter, Debut in *Poetry and Spirit*(2010), A collection of poems : *Entering into the Birch Forest* and others.

자연의 시

배정화

밝은 미소 머금은 사과나무
연분홍 저고리 초록색 치마 입으니
더더욱 아름답다

사과꽃이 무척이나 많이 피어
손 빠르게 숨아주는데
벌들은 사과꽃 꿀샘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한참 지나
꿀에 취해 무거워진 몸
뒷발 툭툭 치며 꽃가루 묻히더니
쏟살같이 날아간다

배정화

2021년 월간 신문에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한국국보문인협회 정회원 (충남 지회장), 황진이문학상 최우수상 수상,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문학부문 명인대상 수상, 시집 『나는 사랑을 주는 자』, 『사랑의 그릇』



Bae Jeong-hwa / Trans. Kim In-young

An apple tree smiling bright and lovely
looks more beautiful
wearing a light pink jacket and a green skirt

While I am pruning quickly with the hands
apple flowers blooming too many
bees indulging themselves in sweet nectar of apple
flowers
fail to stay aware of the time

After quite a while
the bees feeling drunk and heavy on nectar
putting pollen on their hind legs
fly away with lightening speed

■ Bae Jeong-hwa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nmunye* in 2021,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Awarded Hwang Jin-hee Literature Prize, Awarded the prize of master in literature from the chairman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Published poetry book *I am a Giver of Love*.

꿈속*에서

- 책

박정희

집을 비운 사이에
언어들이 돌아왔다
잉크 냄새사이로 달이 뜨고
머릿속에는 책장넘길
촉수가 무수히 자라나고 있었다

간밤의 푸른꿈
단단히 잘 여문 단어
눈뜨고 못보던 시어
행간에서 걸어나오는 기호들,
박제할 표본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었다

속 깊이 묻어둔 우물 안으로
한 권 이야기 건져낼
두레박을 내리고 있는데
바닥이 닿지않아
그믐달을 담고있다
연결되지않은 단막극이었다
명치끝이 저리다

* 한국 현대 시인 협회 편 '동북아 시집' 해석하다가 잠든 사이.

시인, 국제PEN한국본부 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한국문인협회
이사, 제10회 자유문학상, 한국 현대시인협회 특별상

박정희 (해남)



In a Dream*

| 179

– of books

Park Chung-hee / Trans. Kim In-young

While I was absent
words came back to my house;
with the moon rising through the smell of ink
numerous feelers were growing in my brain
to turn the pages of books

In the dream I had last night
the words well ripe
poetic diction I hardly met before in real life
signs walking straight out between the lines
all those stuffed specimens I was collecting

As I was lowering
a bucket into the well
to take out a story put deeply under the water,
the bucket failing to reach the surface of water
was hung over the crescent moon on the reflection
It was just like one act play totally incoherent and confusing
making me feel the numbness at the pit of my stomach

* The dream I had when I fell in sleep reading *Anthology of Northeast Asian Poetry* published by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 Park Chung-hee (Haenam)

Poet,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 PEN, The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 Korea Writers Association, Awarded 10th Freedom Literature Prize &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Special Prize.

저글링Juggling처럼

박재화

안절부절못하는 소년을 바라보며, 고창중* 걸린 황소의 눈망울이 그렇그렇하다

가발 쓴 아이에게 자전거타기 가르치는 젊은 아버지, 인간힘으로 햇살 감기는 뒷바퀴를 잡
아당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누가 입대라도 하는지 가로등이 골목을 그러안고
끔벅거린다

저 함박꽃 언제 화엄세계를 이루었나 엇그제도 가지 끝에 찬바람만 비틀렸는데

시드볼트*에선 언젠가인지 모를 언젠가를 기다리며 거처 잃은 씨앗들이 가면假眠의 밤을
보내고 있다

죽음이 일상이고 삶은 비정상이라고 TV에서 안경을 손에 쥔 법의학자가 일갈하는 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 한 몸 안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 깊은 속으로 무장무장 걸어

들어가는 거다 새벽이 새때를 날릴 때까지

- * 鼓脹症Bloat, 반추동물이 걸리는 헛배 부른 병
- * 김광석의 노래 '이등병의 편지'
- * Seed Vault, 경북 봉화에선 야생식물 종자를, 노르웨이 스발바르에선 작물종자를 보관

박재화

1951년 충북 출생. 성균관대 경영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현 두원공대 교수. 1984년 『현대문학』 등단. 시집 『도시의 말』, 『우리 깊은 세상』, 『전갈의 노래』, 『먼지가 아름답다』, 『비밀번호를 잊다』 등. 기독교문학상, 성균문학상, 다산금융상 등 수상



Like Juggling

Park Jae-hwa / Trans. Kim Sok-hun

Looking at a restless boy, the eyeball of the bull with
bloat* are tearful.

A young father who teaches a wig-wearing child to
ride a bicycle, is pulling the rear wheel of the sunshine
with great effort.

“It’s a new start again; my young life’s dream*,” the
streetlights are hugging and twinkling the alley as if
someone is joining the army.

When did the peony blossoms become a world of
flowers? The only cold wind was twisting at the end of
the branch the other day.

In the seed vault*, seeds that have lost their home
are waiting for one day that may not be known and
spending sleepless nights.

A night when a forensic scientist with glasses in his
hand is saying on TV that death is commonplace and
life is abnormal.

All right, let's start over. I am going to walk into the
 depth until the dawn blows the birds away If it's a place
 I can be embraced.

- * bloat : swelling of the rumen or intestinal tract of domestic animals caused by excessive gas.
- * The late folk singer Kwang-seok Kim's song "A Letter from a Private".
- * Seed Vault : keeps wild plant seeds in Bonghwa, North Gyeongsang Province; keeps crop seeds in Svalbard, Norway.

■ Park Jae-hwa

Professor of Doowon Technical College.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1984 through the magazine, *The Modern Literature*. He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is poems such as *Words of the City*, *Our Deep World*, *Songs of the Scorpion*, *Dust Is Beautiful*, *I Forget the Code Number*. He received the Christian Literary Award, the Sungkyun Literary Award, etc.

도다리쑥국, 봄이 피다

박일소

바다에서 봄을 물고 온 도다리
따뜻한 남풍 불어 오면
통영 바다를 건져 올리고

거친 해풍에 솟아오른 향긋한 쑥
봄 향기 한소쿠리 가득 담아 간다

쌀뜨물에 된장을 풀어 끓인
통영 바다 봄 한 소쿠리

입안 가득 봄내음이 피어오르고
깊은 맛, 넉넉한 인심
봄이 따뜻하다

박일소

국제펜한국본부이사, 한국현대시인협회이사, 문학공간작품상, 한국문학비평가협회문학상, 시집, 『꽃 아래 마음의 거울 놓고』 『하늘로 보내는 편지』 외 5권



Ridged-eye Flounder and Mugwort Soup,
Spring Blooms

| 185

Park Il-so / Trans. Jung Mi-seon

The ridged-eye flounder that drives the spring from
the sea,

When the warm south wind blows,
the Tongyeong Sea is caught to land,

Fragrant mugwort that thrives in the rough sea breeze,
A basket is full of spring scents,

When the spring basket of the Tongyeong Sea is
boiled with soybean paste in rice water,

the mouth smells of full-bodied spring.
With a rich taste and a generous heart,
spring is warm.

■ Park Il-so

Board director of the Korean PEN and the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Received the Literature Gong-gan Award, the Korean Literature Critics Association Award, Published fiv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Putting the Mirror of the Heart Under Flowers* and *Letters to Heaven*.

나의 길

박영하

외롭고 고달픈
새 한 마리
지친 삶을 놓힐 곳은 어딘가
날개가 휘도록 날아도
눈 먼 새는
될 곳을 찾지 못한다
멀고 먼 곳에
가시나무가 있지만
그곳이 새의 삶을
놓힐 곳이지만



박영하

사)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月刊『순수문학』 편집주간

Park Young-ha / Trans. The Author

Where should a bird,
Lonesome and tired,
Settle its worn-out life?
The blind bird tries every means
In vain, its wings drooping down,
To find a place to rest;
Though well aware of
A thorny plant growing
In a place very far away
Where it is to settle down,

■ Park Young-ha

Chairperson of Poetry Division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Editorial Chief of
Monthly Magazine *Soonsoo Literature*.

향기는 꽃이 필 때

박순자

좁은 틈 사이 사이마다
예쁘게 꽃피울 생명들이
건물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름은 알 수도 없지만
누구라도 달려간 그 자리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도록 하자

자유롭게 살아갈 꽃도
순수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신의 축복 속에 태어난 곳이다

함부로 짓밟히지 않고
전쟁으로 헤어지지 않는 삶
희망의 교감을 빨리 이루도록 하자



박순자

2005년 『한국시』 등단, 한국문인협회, 전북문인협회, 전북시조시인협회, 시조집 『가난도 사랑을 품는다』, 한영시집 『민들레 남자의 눈물』

Park Soon-ja / Trans. Kim In-young

In each and every crack of a building
a life that is supposed to bring forth beautiful flowers
is trembling with fear

They grow with the names known to nobody
at the place our heart felt for them;
let's convey the message of our love to them

All the flowers are entitled to live free
as the entities innocent and valuable
for they are born in God's blessing

For life neither being trampled down with force
nor being forced to separate from the family in a war
let's share the hope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for good

■ Park Soon-ja

Poet & essayist, Made literary debut through Korean Poetry in 2005. Member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Jeonbuk Sijo Poets Association. Published Sijo Anthology, *Poverty Hugs Love*, Korean/English poetry book *Dandelion, Tears of Men*

하늘다람쥐와 자작나무

박수화

웅이마다 까마득히 궁전 하나 품고 있구나
 그 길은 수직 뻗어 오르고
 까치발 뻗어도 수액 길 헉헉 숨 차오른다
 매끄럽다, 도르르 말아 올린 순은 기름종이
 종아리 뻗얀 살갓을 뚫고
 가지마다 새순이 돌아나지만
 누군가 매달리던 자국들 까칠까칠
 표백되고 유백 빛 수채화로 번져 났을까

디딤 목 삼아 내 몸 층층 날아오른다,
 파리한 나의 하늘다람쥐여
 신록 이파리 꿈 자락 고물고물 자라나는 순간마다
 자작나무 숲 바람이 훑어간 시간의 이정표인가
 뭉게구름 한낫 햇살이 자작나무
 허파파리로 녹아든다
 또 하나의 나는 자작나무 흰 뼈 그리움, 바람의
 직립 나무화석 되어 여기 곳곳이 서 있으리니

박수화

2004년 『평화신문』 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새에게 길을 묻다』, 『물
 방울의 여행』, 『체리』, 『나무가 있는 풍경』, 『흐린 날 사갈의 하늘을 날
 다』. 한국꽃문학상, 화랑대문학상 수상



Park Soo-hwa / Trans. Kim Sok-hun

Every knot far-off has a palace.
Even if I stretch my tiptoe on the sap road,
the road rises up vertically and I'm out of breath.
It's smooth. The bud rolled up is a pure oil paper.
Every branch has a new turn
through the fair skin of its calves.
How can the marks that someone was hanging on
be bleached rough and spread into milky watercolor?

I'm flying all over my body as a stepping stone,
My pale flying squirrel,
Every time it grows up on the foot of a fresh green leaf's
dream,
is it a milestone in time that the birch forest wind went through?
Clouds in the midday sun
melt into the lungs of a birch tree.
Another I long for the white bones of the birch tree,
I will stand firm here as an upright tree fossil of the wind.

■ Park Soo-hwa

Made literary debut, winning a spring literary contest of Peace Newspaper (2004). Published poetry books *Asking Birds for Directions*, *Travel of Water Drops*, *Scenery with Cherry Trees*, *Flying Chagall's Sky on a Cloudy Day*. Awarded Korea Flower Literature Prize & also Hwarang Literature Prize.

새벽강 꽃 한송이

박대순

오랫동안 세월 품고 돌면서
강변 나무들과 풀 무리 같은 것들
맑은 새벽강 가슴 깊이 흐르는
한 송이 꽃의 눈빛을 보았네

익숙치 않은 멀고도 깊은 생각을 건너다
몸보다 영혼이 더 지쳐 그려진 자화상

내게 달려와 간혀 있는 것들
떠나온 곳으로 돌려보내고
생각의 날개가 가벼워지는 순간
누군가 보고 있겠지
지나온 시간들 모두 다 내려놓고
잔잔히 흐르는
새벽강의 꽃 한 송이면 좋겠네



박대순

『우리문학』(1989년), 시집 『곱셈을 해봐요』, 한국문학회원, 대전문학상

Park Dae-soon / Trans. Jung Mi-seon

For a long time,
riverside trees and grasses
saw the eyes of a flower
flowing deep into the heart of the clear river at daybreak.

It was a self-portrait of a soul more exhausted than a
body
while crossing an unfamiliar and deep thought.

Things that have run up and been stuck inside of me,
When I send them back to where they came from
and become lighter,
someone will be watching me.
I want to put down all the time I've passed
and be a blossom of the morning river,
flowing softly.

■ Park Dae-soon

Made literary debut through *Woori-munhak* in 1989. Published poetry book *Try to Multiply*, Korean Member of the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Won the Daejeon Literature Award.

칠십 인생

박경희

가시박힌 말들도 이젠
 씹어 삼킬 수 있는 나이와
 가슴이 생긴 칠십 줄입니다

꽃피고 향기로운 봄날의 청춘도
 무서울 것 없던 푸르른 중년도
 다 겪은, 저 석양 노을처럼

알록달록 아름답게 물든 단풍으로
 하얗게 다가올 한겨울을 준비하며
 편안한 삶 살아가렵니다

숙제 하듯이 살아온 인생길
 이젠, 축제를 하며 함께 살아가요.

솔희 박경희

한국현대시협, 시문학 아카데미 회원, 월간 『신문예』 편집장. 『하늘을 바라보면 배가고프다』 외 다수, 월간 『시문학』 2010년 시 등단, 푸른 숲 문학상 전체대상, 시와 창작 최우수상 등 다수



Park Kyung-hee / Trans. Kim In-young

Now, being seventy years old
enough to ignore stinging words from others
with the generous heart

Like the sunset of the evening
having gone through the heydays
of the youth full of spring flowers,
of the bold middle age without fear

As autumnal leaves tinged with various colors do
preparing for the winter coming in white
life would be continued in good heart

After living hard as if doing homework anxiously
now, let's enjoy the feast of life all together

■ Park Kyung-hee (Solmoe)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in 2010, Committee member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 Si-Munhak Academy, Chief-editor of *Sinmunye*, Published poetry book *Feeling Hungry if I Look Up into the Sky*, Awarded Green Forest Literature Prize and many more,

이는 만큼 사랑하리라

박정은

꺼이꺼이 눈물을 삼켜 본 사람은 알리라
 상처로 너털너털해진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아득하게 보여 지는 한 가닥 진실의 빛줄기가 있다는 것을

불러도 들리지 않는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또는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빛을 맞이해 본 사람은 알리라
 그 동굴 속에 존재하는 많은 생명체들이
 수많은 낮선 인간의 숫자보다 더 존귀함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감격스러운 축복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때론 삼킬 수 없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서
 토해내고 또 토해내면서 울어본 사람은 알리라
 삼킬 수 없는 감정들, 삼킬 수 없는 언어들, 삼킬 수 없는 음식들을
 토해냄으로써 비어 있는 것에 대한 평안함과 평정심을 주고
 있음을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너와 나, 그리고 우리가 있기에 가능해진 많은 것들
 텅비어 있으므로 꼭 차
 있음에 감사하리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함께 부둥켜안고 어깨를 내어주며
신뢰를 바탕으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짧지만 긴 삶의 여행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박경은

철학박사(상담학 전공), 『문학사랑』 등단, 저서 『이젠, 괜찮다고 말하지
말아요』



We'll Love As Much as We Know

Park Kyung-eun / Trans. Woo Hyeong-sook

Anyone who has swallowed their tears will know
that there's a faint light of truth deep in their hearts,
although the hearts are broken.

Anyone who has seen a light in the muddy darkness,
where nothing is heard, or in a dark cave;
they'll know that many creatures in the cave
may be more precious than many strange humans.
It's well-known what a great blessing it is
to be able to hold someone's hand.

Anyone who has kept vomiting and crying,
after eating carelessly what they can't swallow;
they know they give peace and composure to what's
empty,
by vomiting wrong emotions, wrong words, or wrong
foods.

You, I, and we have made a lot of things possible,
in the process of living a day and living another day.
Being empty, and so being full;
I'd appreciate it.

We know too well that we can continue to walk
the short but long journey of life;
in the process, we'll hug each other and offer shoulders
with love, forgiveness and consideration, based on trust.

■ Park Kyung-eun

Doctor of Philosophy (major: counseling).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through the magazine, *The Love for Literature*, and published a counseling book, *Now, Don't Say It's Okay*.

언어와 칼

박강남

생의 완급

혹은 삶의 완창을 위해

책을 읽듯

경전을 대하듯

쉽 없이 뜯고 통겨야 하는

내 삶의 악기다

박강남

1995. 2 『한맥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시집 『바람 없이도 흩날리는 꽃잎』 (2020, 시문학사), 2013. 영랑문학상 수상



Park Kang-nam / Trans. Park Cheon-yong

Speed/urgency of my life

Otherwise, for completeness of my life song.

Like reading books

or scriptures

Endless plucking & strumming

of my life's instrument

■ Park Kang-nam

Made literary debut through Hanmack Literature in 1955, winning the New Poet Prize. Board member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ublished poetry book *Scattering Petals Even Without the Wind*. Awarded Young Rang Literature Prize & Peasant Literature Prize.

맥문동 꽃

문철호

폭염에

지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꽃

백일 간 가슴속에

흑진주 고이 품고

신비한 보랏빛으로 고운 향기 품은 너



문철호

시인, 문학박사, 『대한문학세계』 심사위원

Moon Cheol-ho / Trans. Jung Mi-seon

A flower that raises
its body fatigued
by a heat wave.

It holds a black pearl
in its heart for one hundred days

before emitting a lovely scent of mysterious purple.

■ Moon Cheol-ho

Poet, Ph.D. in literature, Evaluation committee member of *the Korean Moonhak-segae*.

3차원 시간 위로 4차원 시간이

맹숙영

마침내 두 손을 놓아버리고
 벼랑 끝에 매달려 발버둥 치던
 괴돌기를 멈춘 고뇌의 심장
 그 찰나에 한 시간은 멈추고
 한 세계도 멈추었네
 차디찬 땅바닥에 떨어져
 육신만 남겨놓고 영혼은 떠났네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상에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그렇게 안간힘 썼지만 어찌하리

영육의 세계는 차원이 다르네
 이미 갈라선 서로의 운명
 멈추어선 시간 위로
 달려 나가는 또 다른 시간이어
 3차원의 세계를 떠나버린
 4차원의 세계는 안개꽃 너머
 육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네
 시나브로 희미하게 사라지네

맹숙영

2007년 『창조문학』 등단. 시집 『영원한 여기에』 외 11집. 한국기독교시문학상, 성균문학상, 한국문학 서울시문학상 등 수상



Four-dimensional Time Above
Three-dimensional Time

Maeng Sook-young / Trans. Woo Hyeong-sook

Finally dropping the two hands,
he struggled on the edge of the cliff;
his heart of anguish stopped blood circulation.
At that moment, a time stopped moving
and a world stopped, too
He fell to the cold ground,
leaving his body behind, and his soul is gone.
He kept praying and struggling so much
on the border between the world and the underworld.
But what should he do?

The world of spirit and flesh is in a different dimension.
Each other's fate is already divided.
Oh another time is running
over the stopped time.
Leaving the three-dimensional world,
the four-dimensional world disappears
from his body beyond white gypsophila.
It is gradually fading away.

■ Maeng Sook-young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in 2007 through the magazine, *The Creative Literature*. She published twelv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Eternal Here*, and received the Korean Christian Poetry Award, the Sungkyun Literary Award, the Seoul Literary Award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etc.

비둘기 편지

노유섭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묻고 물으며
 그대 창가에 전하는
 이 푸른 편지를 받으시게나

그리운 그때 그 시절은
 우리들 마음속에 따뜻하게 살아 있어
 보리밭 이랑처럼 물결쳐 흐르는 것

비록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삶이란 살아볼 만한 것이란 것을
 이 푸른 잎새 편지에 전하느니
 그대여 언덕 너머 저 푸른 강물처럼 흘러가세나

우리네 고향마을
 그토록 출렁이던 무논과 밀이삭 너머
 아직도 푸르른 저 하늘,
 비 온 뒤의 무지개를
 그대여 고개 들어 바라보세나

노유섭

『우리문학』으로 등단(1990). 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시집 『꽃배
 추를 아시나요』, 한국현대시인상 수상



A Dove's Letter

| 207

Noh Yu-seob / Trans. Kim Sok-hun

Please take this blue letter
asking if you're doing well
to your window.

Those missing times
still stay warm in our hearts,
rippling like a furrow of barley.

Even though life is hard and difficult,
the message that life is worth living
is delivered in this green leaf letter.
You flow like that blue river over the hill.

The still green sky
over the swaying radish field and wheat ears
in our hometown,
please look up and see
the rainbow after the rain.

■ Noh Yu-seob

Made literary debut through *Our Literature*(1990), Advisory member of PEN International Korea. Published poetry book *Do you know flower cabbage?* Awarded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rize.

안달루시아* 초원

- 청명한 가을 아침에

노수승

동편의 크리스털 창문 열리면,

도토리나무 사이

빗발치는 햇살에 찢려

은갈치떼 파닥인다

뉘싯대 드리운

갈바람의 고괘질에

은비늘 날린다

풀잎마다 야생의 투명한 눈망울에

가을 하늘 든다

* 안달루시아 : 스페인 남부의 지방

노수승

문학박사. 2011년 『한국문학시대』 등단. 시집 『놀리면 허허 웃고 마는 사람』, 『스노우볼』, 『모든 색깔의 어머니』



The Grassy Plain of Andalusia*

| 209

– On a Clear Autumn Morning

Noh Su-seung / Trans. Woo Hyeong-sook

When the crystal window on the east side is opened,

silver cutlassfish seem to flap in shoals,
as they are stabbed by the sunlight
pouring through acorn trees.

Hanging a fishing rod,
the autumn wind seems to wind the reel;
shiny silver scales float around.

Clear dewdrops on the wild grass
reflect the autumn sky.

* Andalusia : a province in southern Spain.

■ Noh Su-seung

Doctor of literature,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2011 through the magazine, *The Age of Korean Literature*, and published two collections of his poems, *A Person Who Smiles When Being Teased* and *Snowball*.

노금선

검자쫄빔 향기가 스무 살 여인 같다
 한 알 입에 넣으면
 입 안 가득 새콤한 바람이 일고
 웅달샘이 고인다

농염하게 영그는 모습이
 지극히 아리따다

삶도 은반 위에 놓인 한때를 잊지 않는다
 그 무르익은 날들을
 발효된 기억으로 음미하면
 행복에 혼흔히 취해 하루가 탐스러워진다

스무 살 여인이 흥조 먼
 저녁 해에 들어 있다



노금선
 문학박사, 대전 문협 부회장, 선아복지재단 이사장

Rho Keum-seon / Trans, Kim Sok-hun

Dark purple scents are like a 20-year old lady
If you put it in your mouth,
there's a sour breeze and a small spring
in your mouth,

Looks richly ripen
are extremely beautiful,

Life also never forgets the best moment,
If you savor those ripen days
with fermented memory
your days get drunk with happiness and become
fruitful,

A 20-year-old lady
is blushed in the evening sun,

■ Rho Keum-seon

Ph. D in Literature, Vice-president of Daejeon Literature Association, Chairman of Sun-A Welfare Foundation,

외로움이란 것

남상광

사람은 외로워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더 외로워지느니

사람만이 외로운 줄 알았다
가진 것이 없어 외로운 줄 알았다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 외로운 줄 알았다
한없이 높아 우러르며 쳐다보는 하늘과
석양까지 보듬으며 같이 울어주는 바다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줄 알았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릴 때부터 억만년을
같은 자리 떠나지 않는 바위산은
외로움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줄 알았다
자연은 결코 외롭지 않은 줄 알았다
그래서 자연은 무너지지 않는 줄 알았다
세월이 지나 나도 이제 자연이 되어보니
외롭지 않은 것은 세상에 아무 것도 없느니

사람은 외로워져 사람을 떠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느니

남상광

『시문학』 신인작품상 외 수상, 시집 『뺑인(人)을 위하여』 외, 시에세이집
『사랑은 끊임없는 흔들림이다』, 호서문학 회장



Nam Sang-gwang / Trans. Jung Mi-seon

Feeling lonely sometimes leads you to meet someone,
but that can make you feel even lonelier.

I always thought loneliness was just a human thing.
I thought I was lonely because I didn't have anything,
I believed that lack of giving made me feel lonely.
I thought the sky, vast enough to gaze at endlessly,
and the sea, which seems to weep as it embraces the sunset,
could transcend loneliness.

I assumed loneliness would never dare approach
the rocky mountain, which has stood
for billions of years since the heavens and earth first opened.
I imagined that nature could never feel lonely,
leading me to believe that it would never falter.
However, as I grow closer to nature, I
realize that nothing in this world is free from loneliness.

You may leave someone when you're lonely,
but you often find yourself returning because of that very
person.

■ Nam Sang-gwang

President of Hoseo Literature Association. Awarded Simunhak's the Work of New Poet Prize and more. Published poetry book and essays including *Love is Constant Shaking*.

꽃의 속도

김혜숙

긴 숨을 몇 번씩 쉬고
 그 반동으로 피었다가
 각각의 생을 다하고
 지고 지고 지는

세상에 남기고 가는
 웃음보다 더 빠르고
 슬픔보다 더 느리게
 오로지 또 다른 날을
 향해간다

그 속도
 나와 당신의 속도 만큼
 피움의 시간이 그렇게
 철없이 갔다

조율의 날은 이제 없다

은월 김혜숙

『서울문학』 2013년 등단, 시집 『어찌자고 꽃』, 『끝내 붉음에 젖다』, 『아득
 하고 멀도록』, 2017년 시전문지 시마을 문학상, 2021 국제문학 문학상



The Speed of Flower

| 215

Kim Hye-sook / Trans. The Author

Breathe in deeply several times
And dodge with the recoil
Completing each life
Losing and losing and losing

Leaving behind in this world
Faster than laughter
Slower than sorrow
Solely facing
Another day ahead

At that pace
The time of relationships
Goes by so innocently

The days of tuning are no more

■ Kim Hye-sook (unwol)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eoul Literature* in 2013. Awarded SiMaedul Literature Prize in 2017 and Gookjei Literature Prize in 2021. Published poetry book *How Flowers Come About, Finally Soaked in Redness*.

편지

김태룡

옷깃을 여미고 가끔
 스쳐 지나버린 당신
 따사로운 가을 햇살
 받기며 내미는 손길
 바람은 항상 과분한 사치의 그늘
 으스스리는 듯한 포옹
 실려보내고 흘러간 추상들을
 어루만지며 꽃꿈의 나래를 펼쳐본다
 오색 무지개빛으로 활짝 피워 보리라

—鶴 김태룡

경북 청도출생, 호 일학(一鶴), 『시문학』 모운숙, 신동집, 문덕수 3인 추
 천 등단(1974~1975년). 부천대학 겸임교수, 한국문인협회 시흥시 부지
 부장,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및 경기pen 부회장 역임, 한국문인협회
 회원, 국제pen 한국본부 회원, 현대시인협회 지도위원, 농민문학회 심
 의의장, 문예(부원)사조상, 단국문학상, 농민문학상, 교육부 장관상, 대
 통령상 수상, 시집 『망각의 계단』, 『아이들 환으로 바꾸지』, 『울타리 속
 환티지』 외 다수



Kim Tae-ryong / Trans. Kim In-young

Having adjusted the clothes
you just went past me sometimes
holding your hands out
to greet the warm sunlight in autumn
With a hope always existing in the shade of extravagance
I am sending you strong embrace
Gently stroking the things of the past all gone
I am making your beautiful dream unfold
desperately to see it fully bloom in great rainbow colors

■ Kim Tae-ryong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in 1974-75. Member of Korea PEN, Guidance committee member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Chairman of Deliberation Committee of Peasant Literature Association. Awarded Muyeajajo Prize, Presidential Prize and many more. Published poetry book *Stairs of Oblivion* and many more.

숲에 가을바람 불면

김철기

어디서 바람 일어 숲에 와 불면
 나무마다 잎사귀 날날이
 또는 무더기로 공중 길을 내며
 내려앉을 자리 탐색이다

성글게 남은 잎들도
 짧은 생존을 감지한
 서걱서걱 물기 마른 목소리
 먼 지난날 한 자락 그리움이다

휘휘 숲에 가을바람 불면
 사랑앓이 큰 슬픔 없이도
 나는 가슴부터 서늘하다가
 느닷없이 생성된 눈물 흥건하다

김철기

시인. 화가. 시낭송가. 『교육평론』(1972), 『문예사조』(1991), 국제PEN 한국본부 감사, 한국문협 시서화진흥위원, 한국현대시협 지도위원, 시집 『그리다』 외 14권, PEN문학상, 한국문학백년상, 등



Kim Cheol-ki / Trans. Kim In-young

If the wind raised in somewhere comes to blow in the
wood

single leaf at each branch or a cluster of leaves
tries to find the way in the air
getting themselves ready to fall down on the ground

Sparsely hanging leaves, too,
being aware of their last left short in time
make rustling sounds in dry voices
resounding their longing for the days of the past long
gone

If the autumn wind blows in the wood
even without suffering sorrow caused by love sickness
I feel cold in the chest and find all of a sudden
my eyes filled with tears

■ Kim Cheol-ki (pen name: Yulwon)

painter, poetry reciter. Made her debut as a poet through *Education Review* in 1972 and through *The Literary Trend* in 1991. She has published fourteen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Dreamy Growth Rings*. And she received the Korean Poetry Award, the PEN Literary Award, the Korean Literature Centennial Award, etc.

전나무가지와 나

김중희

숲에 밥을 짓느라고 부엌 아궁이에서
 전나무가지들이 활활 타고 있다
 불꽃은 나뭇가지에 섞여있던
 해와 비와 공기를 풀어내어
 굴뚝 밖으로 내보내느라
 탁탁 소리를 내며 숯과 재를 만들고 있다
 숯은 불순물이 정제된 탄소덩어리,
 나무가 흙에서 빨아들인 광물들이
 아궁이 밑에 재로 남아있다
 내 몸도 이와 같은 원자들이어서
 언젠가는 불꽃이 아니라도
 서서히 진행되는 부패과정을 통해
 전나무가지와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될 것이다

김중희

1983년 월간 『시문학』 등단. 시집 『S부인은 넘어지다』 등. 시문학상 등
수상



Kim Jong-hee / Trans. Woo Hyeong-sook

Fir branches are burning in the kitchen furnace
to cook rice in the rice cooker,
Sending the sunlight, rain and air
that have lingered in the branches,
out of the kitchen chimney,
the crackling flames are making charcoal and ash.
Charcoal is a carbon mass with impurities refined;
Minerals that trees absorbed from soil
remain as ashes under the furnace.
My body is like these atoms;
some day I'll meet the same fate as the branches
through a slow decay process,
if not by flames.

■ Kim Jong-hee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in 1983 through the monthly magazine, *The Poetic Literature*. She published some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Mrs. S Falls*, and received the Poetic Literature Award, etc.

추분이 왔네

김유조

황경 180도를 넘는 이지의 햇살이
오늘 아침 마침내 다정하다

지상의 난리를 염천 탓으로 돌렸지만
인간의 과욕과 모반이었을 뿐
하늘 길 태양은 간밤의 열대야를 걷어차고
이치의 길을 걷도다

뜨거워 향방 모르던 들판의 허수아비도
하마나 때를 찾아 방황하던 바닷길의 전어도
오늘부터는 길눈을 회복하리라

차가운 이성으로 음양 이치를 차려준
오늘은 하늘 길 황경 180도
추분!
풀벌레가 개선 행진곡을 연주하는데
이슬방울은 메멘토 모리를 외치며
겨울을 예지하듯 영롱히 금방 스러진다“

김유조

건국대 명예교수(부총장 역임) 국제PEN한국본부 부이사장, 학술원우수
도서상 헤밍웨이문학상 서초문학상 김태길수필문학상 등 수상, 장편 및
소설집 4권, 수필집 평론집 학술서 및 번역서 다수



Autumn Equinox is Here!

| 223

Kim Yoo-jo / Trans. The Author

The sun's rays, beyond the 180th meridian,
are finally gentle this morning.

I once blamed the chaos of the earth on the scorching sun,
but it was only because of human greed and treason.

The sun on the celestial path kicked away the heatwave
of the last night and walked the path of reason.

The scarecrow in the field, which was too hot
to know the way, and the spotted sardine in the sea,
which wandered for the time,
will also recover their eyesight from now on.

Today, which arranged the yin and yang principles
with cold reason, is the celestial path 180 meridian,
Autumn Equinox!

The crickets play a victory march,
and the dewdrops shout "memento mori"
and sparkle as if to foretell winter.

■ Kim Yoo-jo

Prof. Emeritus(Konkuk Univ, ex vice president), Vice President PEN Korea, President Korean Dream Literature Association, Chief Editor The Korean Writers, Book Award from Korea Academy, Hemingway Literary Prize, etc., 5 Novels, 3 Collected Poems, Several Essay & Critical Books.

석인石人

김유제

구름 가고 달이 가고
별이 뜨고 별이 지고
바람 불고 바람 자도
변함이 없네

꽃이 활짝 하늘을 보고
풀벌레가 울고 웃고
산새, 들새 날아가 모두 변했어도
변함이 없네

옷을 입고 옷을 벗듯이
계절이 오고 가고
비 내리고 눈 내려
아침이 오고 어둔 밤이 왔어도
변함이 없네.



김유제

시인 석수장인. 한국문협보령지회 명예회장. 시집 『서울역의 봄』 외

Kim Yoo-jae / Trans. Kim Sok-hun

Clouds going and the moon going
Stars rising and stars falling
Even if winds are blowing and winds are calming
It hasn't changed,

Flowers looking at the sky
Grass bugs crying and laughing
Even if mountain birds and wild birds are all changed
It hasn't changed,

Like getting dressed and taking off clothes
The season coming and going
Raining and snowing
Even if the morning came and the dark night came
It hasn't changed,

■ Kim Yoo-jae

Poet, stone craftman, Honorary president of Boryung Branch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Published poetry book, *Spring at Seoul Station* and more.

바람 따라서

김용옥

산다는 게 별거나
바람 따라 흔들리는 거지

산들바람 불거든 산들거리고
폭풍 몰아치면 생살 가지 부러지기도 하면서
바람 지나가기를 지켜보는 거지
지나가지 않는 바람이란 없거든,

내 이들을 내친 군사정권의 모지락스런 바람도
보아라, 지나가지 않더냐, 스러지지 않더냐,

무더위에 실바람은 간절한 그리움 같지
설한풍에는 불 안 땀 골방도 위로가 되지

세상의 온갖 바람은 우리 곁을
돌고 돌아 왔다가 멀어져 가는 것

괴로워하지 말고 바람을 지나가게 하렴
그냥 바람을 바람이게 하렴



김용옥

『시문학』 등단, 전영택문학상 수상, 한국현대시인협회 부이사장(역)

Kim Yong-ok / Trans. Kim In-young

Living is nothing much
but being wavering in the wind

Wafting in the breeze blowing gently
or waiting with broken branches
for the stormy wind to be passing by
knowing that it always goes away

The gusty wind of the heartless military regime
blew away my son but perished along after all

Even a light breeze is longed for in the sweltering heat;
even a freezing cold room can be restful in the snowy
wind

Every wind of the world comes and goes
turning around and around us until it goes away

Without making you suffer, let it go its way,
just leave it alone to be the wind passing by

■ Kim Yong-ok

Poet,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Vice-president of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Awarded Jeon Young-taek Prize for Literature.

바람

김완용

자유가 억압된 풋대 끝
 청마 유치환이 오래전에 달아놓은
 노스텔지어의 깃발을 흔들며
 바람이 살고 있었다

떠도는 방향과 속도를 안고
 하루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 같은 깃발
 애달피 흔드는 바람의 모습 보였다

때론, 자유가 더욱 그리워
 풋대 끝 깃발을 두고 내려와
 역새도 쓰다듬다 가는
 외로운 바람이었다.

김완용

한국공무원문학회 회장,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공군 준사관 36년
 근무, 시집 『들녘에 부는 바람』 외 7권, 시선집 『기억의 마디』, 수필집
 『그 길 문득』 외 다수



Kim Wan-yong / Trans. Kim In-young

At the tip of a signpost with freedom repressed
the wind dwells there,
waving the nostalgic flag
that poet Yoo Chi-hwan put up a long time ago

Trying to catch the direction and the speed of time
while holding onto the day
the flag was fluttering with the whole body, and I can see
the wind through the heartrending struggles of the flag

Sometimes, missing freedom more than ever
the lonesome wind swirls down to the ground
leaving the flag up there at the signpost
only to stroke silver grass for a while

■ Kim Wan-yong

Chairman of the Korean Civil Service Literature Association, A collection of poems : *The Wind on the Field* and seven books,

가을밤

김영수

감잎은 얼굴 붉혀
뜨락에 내려쉬고

귀뚜리 달밤노래
악보는 거미줄에

시인이
시 한 편 쓰면
기러기가 읽는다.



김영수
아동문학가, 시조시인, 대전시조시인협회장 역임

Kim Young-soo / Trans Kim In-young

Persimmon leaves with blushing faces
taking a rest on the yard

Crickets singing at night under the shiny moon
with a musical note hanging on the spiderweb

Poets
writing a poem
for a wild goose to read

■ Kim Young-soo

Sijo poet, President of Chungnam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Former president of Daejeon Sijo Poets Association,

김선진

입으로 지은 죄
참회의 기도로 사면 받아

눈으로 지은 죄
못 볼 것 많이 본
시린 눈 훔치다 도진 눈병 얻고

열린 컷바퀴 맴 돌다 들은 죄
한 쪽 귀로 듣고
또 한 쪽 귀로
물처럼 흘린다면

큰 바윗덩이 눈물겨운 죄
가슴 떨리는 용서 시리도록 받아

맞닿은 입술과 포개 속눈썹
들릴 듯 말 듯 귀를 싸안고
이제 야 날아라! 훨훨 깃털 되어 드높이 올라라!

김선진

월간 『詩文學』 신인상으로 등단(1989), 시집 『몽환의 다리에서』(2021) 시문학사 외, 산문집 『소리치는 나무』(2019), 한국현대시인상 수상(2012), 이화 문학상 수상(2015), 제37회 윤동주 문학상(2021)



Kim Sun-jin / Trans. Kim Sok-hun

Sins committed by my mouth
were pardoned for a prayer of repentance.

Sins committed by my eyes
I wiped but got sore eyes
that I've seen a lot of things I can't see.

Sins committed by my open ears
If I spills those like water
with one ear
and with the other one,

Tearful sins like a big rock
were painfully wiped out with a heart-shaking forgiveness.

With lips touched and eyelashes overlapped
and with ears wrapped as if anyone could barely hear
Now, fly! Be a feather and rise high!

■ Kim Sun-jin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imunhak* in 1989. Published poetry book *At the Bridge of Dreamlike Reverie*(2021) and more. The collection of prose *The Shouting Tree*(2021), Awarded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rize Yoon Dong-ju Literature Prize, and more.

회로도

김선영

메신저 검색 중

‘무미건조한 삶’

다섯 문장의 낱말로 너의 안부를 짐작하지

바코드를 찍으면 해체된 선에 닿을 수 있을까
여기 길가, 거리의 온도는 무장 해제

전동키보드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은 체온

직육면체 이거나 닿을 수 없는 간격

검색창에 연결된 메시지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

날을 세워본 적 없는 것들의 속도
선택이라는 단어로 초이스를 하지
표면으로 튕겨져 나가는 손끝의 리듬 그 자체로쉽표가 없는 이야기의
끝말을 품으면 자취를 감췄던
둘 사이의 간격이 좁혀지지

어떻게 지냈냐고, 설명하지 않아도
 겹쳐지는 것들이 전달되고 있거든

시계초침은 감정선을 돌고 있어

못 빠져나온 마음이 거기 있거든

가장자리에 닿으려는 위안의 힘

김선영

월간 『순수문학』 등단, 국제PEN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한국 여성문인학회, 순수문학인협회 회원, 전국 나라사랑 독도사랑 수필부문 최 우수상, 영랑문학상 우수상, 시집 『달팽이 일기』, 『어디쯤 가고 있을까』 등 다수



Circuit Diagram

Kim Seon-yeong / Trans. Kim In-young

Clicking the Messenger icon

‘a dull and dreary life’

Guessing how you are doing from your words in five sentences

Wondering if the broken lines can be restored by scanning a barcode,
here on the roadside, feeling the heat of the street without wearing armor

Electric kickboard is felt hot like body temperature not yet cooled down

Either having a cuboid or a gap that can't be closed

Messages linked with the searching engine require conversation skills

The speed of the things that haven't been sharpened ever

being chosen by the word called selection

bounce off the surface with the very rhythm felt at the
tip of fingers

Taking to the heart
the last word of a story kept continuing without pauses
makes the gap between us two get closer

Not necessarily asking or explaining how's it going
things overlaid over one after another in the heart can
be conveyed

A second of a clock keeps turning around our emotion

Pointing to our heart still trapped there as always

Attempting to reach for it with the power of consolation

■ Kim Seon-yeong

Made literary debut through *Seonsoo* Literature in 2013. Member of PEN Korea,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Women's Literature Association, Seonsoo Literature Writers Association. Published Poetry Books *A Snail's Diary*, *I Wonder Whereabout It Is Going To*, etc.

민들레 꽃

김병익

인도의 보도블록 틈새에
뿌리를 박고 삶의 아픔을
견디어 내며 하늘만 높이 바라보고
휘영창 밝은 밤에도 홀로 웃고 있다.

고즈넉한 야산의 자드락길가
큰 바위 틈에서 고난의 삶을
이기며 쏘옥쏘옥 올라오는
민들레꽃이 사방을 두리번두리번
바라보며 노오란 꽃망을 활짝 펼쳐 놓았다.

시멘트 바닥의 틈새에서
딱딱한 바위벽 틈새에서도
뿌리를 박고서 자유의 속살을
드러내며 그윽한 샛별로 빛나던
민들레 꽃 흄씨가 훨훨 바람을 타고
새 희망을 품고서 살포시 멀리 날아갑니다.

김병익

2000년 『옥로문학』 시등단, 2002년 『문학세계』 수필등단, 2001년 『한
맥문학』 동시 등단, 『문학세계』 문학상 본상 수상



Kim Byung-eok / Trans. Woo Hyeong-sook

Rooted between paving slabs on the sidewalk,
the dandelion flower is bearing the pain of life,
only looking up to the sky;
Even on a bright night, it is smiling alone.

Even in the crack of a large rock
on the slope of a tranquil hill,
a dandelion plant starts to grow
after enduring hardship. Looking around,
its yellow flowers are in bloom.

With roots in the crack on the cement floor
and in the crack on the hard rock,
dandelions shine like bright new stars,
showing their true intentions for freedom.
Their seeds are flying far and wide
in the wind along with a new hope.

■ Kim Byung-eok

He made his debut as a poet in 2000 through the magazine, *The Okro Literature*, and as an essayist in 2002 through the magazine, *The Literary World*, and as a poet for children through the magazine, *The Hanmaek Literature*. He received the Main Literary Award of the Literary World.

천년 걸음

김민채

거침없는 네 젓은 음성으로 인해
 지금은 너무나 많이 넘쳐나는

밤의 깊이 알지 못하는 그리움
 하얀 목마름으로 다시 보고 싶어

흐드러진 청홍단 그늘 내린 날
 여린 빛 아래 석등 켜 그 시공 안에

천년 걸음한 하늘 그대 햇살이
 어이 이토록 오래이건만

하랑 김민채

국제계관시인연합 한국본부, 한국문인협회 회원, 대한문학세계 시부문
 신인상 등단, 공저 한국문학시선집 『호모 노마드투스』, 한용운공동시선
 집 『나 그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외 다수, 한국문학상 시부문 한국문
 학특선상, 한용운문학상 시부문 특별작품상·우수상



Coming from a Thousand Years Away

| 241

Kim Min-chae / Trans. Kim In-young

Prompted by your voice wet and forthright
strong enough to fail me controlling myself now

I miss you in the unfathomably deep darkness of the
night
craving to see you again, feeling inexorable thirst

On the day blue and red flowers in full bloom make
shades
within time and space made by the feeble light lit by
stone lanterns

I feel like I am seeing you after such a long time
as if you are the sunlight coming from a thousand
years away

■ Kim Min-chae (pen name: Harang)

made literary debut as a poet in 2019 through *The Daehan Literary World*. She published the collections of poems including *Homonomadtus*, *I Love You like That* and more. And she received the Han Yong-un Special Work Award, etc.

지금은 연구중

- 별장

김미순

이 집이 당신이었어요.

자꾸만 좁아지는 도심을 벗어나
가슴 열어 바쁜 마음 한 쪽으로 밀쳐놓고
처마 끝이 아름다운 초가집 한 채 지었습니다

황토 흙 내음이 숨마다 배어드는
저만치 수초가 가득한 큰 냇물이 흘러
저절로 넓은 뒤뜰 가득 바람을 키우며
사립문 안으로 감나무가 휘어진 나의 별장

건축비는 자투리를 이용한 몇 시간의 생각
취득세와 각종 세금은 특별면제
번거로운 등기절차는 푸른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것

다만 우체부 아저씨를 위한
문패에 명기할 주소와 당신이 찾아올 교통편은
지금, 연구 중입니다.

김미순

1987 『문학과 의식』 시 등단, (사)부산시인협회 명예이사장,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부산문학상 본상, (사)부산시인협회상 본상 수상, 시집
『바람, 소금 한 톨 품어 오듯』 등 11권



Now Under Consideration

| 243

– The Second House

Kim Mi-soon / Trans. Kim In-young

This house is meant to be you

Getting away from the downtown felt to be getting narrower
with the open mind pushing hectic mind aside
I built a cottage having the beautiful edges of eaves

Where the smell of yellow soil I can breathe in every time
while a creek full of floating waterweeds is running peacefully
raising gentle wind for the backyard wide and shallow
and a persimmon tree bends over the hedge gate of the house

The construction costs several hours of spare time for thought
Taxes for acquisition and property are specially waived
Registration procedure requires a glance of the blue sky just once

The address to be written on the doorplate for the postal clerk
along with the traffic information for you to find the house
haven't been decided yet but now under consideration

■ Kim Mi-soon

Kim Mi-soon made her debut as a poet in 1987 through *The Literature and Consciousness*.
Honorary President of Busan Poets Association, Board member of The Korea PEN, Awarded
the Busan Literary Prize, Busan Poets Association Prize, Korean Marine Literary Prize, etc.
Published 11 poetry books including *Wind As if It is Coming with a Grain of Salt*.

가을 편지

김명수

이 가을엔 편지를 쓴다
 내 속살 같은 은행잎 하나
 우표처럼 붙이고

온 산천에 쏟아지는
 여름의 잔해들
 바람이 그네 되어 흔들리는
 갈대숲에서
 타오르는 그리움을 보낸다

긴긴 여름날의 띄약별을 지나
 산기슭을 돌아오는
 지친 그림자 하나
 추억의 강물 위에 손을 흔든다
 젖은 손을 흔든다

김명수

시인, 『현대시학』 등단 (1980-82), 충남문인협회장, 시집 『질경이꽃』 외
 다수, 한국문학상, 충남문화상 수상 등



Kim Myung-soo / Trans. Kim Sok-hun

A ginkgo leaf like my inside flesh
I put it on like a stamp
I am writing a letter this fall.

The remnants of summer
pouring down the mountain stream
and swaying in the swing of the wind
in the reed forest
I am sending my burning longing.

Passing the scorching sun on long summer days
and returning to the foot of a mountain
A tired shadow
is waving on the river of remembrance
and waving wet hands.

■ Kim Myung-soo

Poet, Debut with *Modern Poetry* (1980-82), Chairperson, Chungnam Literacy Society,
Published poetry books *Plantain Flower* and many others, Award of Korean Literature,
Award of Chungnam Culture.

폭설

김기월

대설 주의보가 내리고
 전국은 흰 눈 속에 갇혔다
 얼룩진 세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온통 흰색의 바다다
 물끄러미 바라보던 얼굴 위로
 그리움 하나 떨어져 눈물 짓는다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지상으로
 내려앉는 저 어지러운 눈 밭
 고개 돌려 하늘 보다 알았다
 그리움이 오는 것이라고
 서러움이 폭발해 바람을 타고
 눈밭에 쓸려 하얀 눈 밟으며
 서러운 몸짓으로 오는 것이라고
 십 년만의 폭설은 등뼈를 드러내
 외로움이 눈덩이처럼 불어
 그리운 이름 때로 내린다
 생의 전부를 내주고서야
 폭설은 멈출 것이다



김기월

2016년 등단, 국제 PEN 한국본부 회원, 저서 『늘 처음이었어, 오늘처럼』, 2019, 2021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시 당선(서울역에 오면, 다시, 봄)

Kim Gi-weol / Trans. Jung Mi-seon

A heavy snow warning was issued,
and the whole country was trapped in white snow.
As if to laugh at the stained world;
it's all white sea.
Over the face I'm gazing at it,
a longing falls and brings me to tears.
Those dizzy snowflakes fall
to the ground without making a single noise.
When I turn my head to look at the sky, I suddenly realize
that longing is coming.
It is coming with a sad gesture,
filled with sorrow and
carried on the snow flurries in the wind, stepping on the
white snow.
The first heavy snow in a decade reveals a spine,
and the loneliness grows like a snowball,
bringing down a bunch of missed names.
The heavy snow will stop
after giving up all of its life.

■ Kim Gi-weol

Made literary debut in 2016, Member of the Korea PEN, Published poetry book, *It Was Always My First Time, like Today*. Selected "When You Come to Seoul Station", "Again, Spring" for subway screen doors in 2019 and 2021.

아버지의 등골

권천학

아버지 등골은 산맥이다
 들어갈수록 깊어지고, 올라갈수록 우뚝해지는 첩첩산중!
 절벽을 오르내리며 넘어진 자리마다 세워놓은 돌 표지석
 벼랑길 아슬아슬 줄 타던 아버지의 그 산맥

아버지의 등골은 장강長江이다
 흐르고 흐르면서 낮은 곳 후미진 곳 씻어내는 깊은 강!
 그 강물에서 놀고 먹고 살 올리며 헤엄치는 물고기 되어
 굽이굽이 견디며 출렁이며 바닷길 트던 아버지

아버지의 산줄기에서 배운 산타는 법으로 등성이에 오르고
 아버지의 강줄기에서 배운 헤엄치는 법으로 세상파도를 건
 년다
 첩첩세상, 출렁바다를 건너는 길이 된 아버지의 등골



권천학

캐나다 교포 시인. 『현대문학』 등단, 시집 『청동거울 속의 하늘』 등, 국제PEN해외작가상, 경희대해외동포문학상, 우탁시조문학상 등 수상

Kwon Chun-hak / Trans. Woo Hyeong-sook

My father's spine is like a mountain range;
As he went in, it was deeper; as he went up, it was higher!
Where he fell up and down cliffs, he placed stone markers.
In the mountains, he climbed a rope precariously to cliffs.

My father's spine is like the Yangtze River.
The deep river flows, cleansing the bottom and corners.
He played, ate, gained weight, and swam like a fish in it.
Enduring the rolling waves, he entered the sea.

Learning how to climb from his mountain range, I climb.
Learning how to swim from his river, I overcome hardships.
His spine is the way to cross the rolling sea in this world.

■ Kwon Chun-hak

Korean-Canadian poet. She made her debut as a poet through the magazine, *The Hyundai Literature*. She published many collections of her poems, including *The Sky in the Bronze Mirror*, and received the Overseas Writer Award of International PEN-Korean Center, the Kyunghee University Overseas Korean Literary Award, the Woo Tak Sijo Poetry Award, etc.

구부렁길

권경호

시골길 걷다보면
 민들레 꽃잎이 발길에 채이고
 개구리 울음소리는
 노랫가락이 된다

구부러진 논밭길
 워낭소리 컷전에 맴돌고
 아낙네 웃음소리
 꽃비되어 내린다

외줄기 산길에선
 욕심과 분노 사그라들고
 싱그러운 깨달음이
 나를 이끈다

쉬운 길로 살아온
 빈손보다
 굴곡진 삶의 여유가 좋다
 구부러진 길이 좋다

권경호

『한국문학시대』 등단, 대전 문인총연합회 회원, 시삶문학회 고문, 대전
 시내 영어 교사 25년, 시집 『거기에 내가 있다』 출간



Kwon Kyung-ho / Trans. Kim In-young

When I stroll on a country road
I find dandelion petals crunched under my feet
listening to the crying noise of frogs
that was becoming a chorus with various tones

On a winding footpath between rice fields
I hear cow bells ringing around the rim of my ear
enjoying the laughter of women working in the fields
as refreshing as the rain with floral scent

Walking on a mountain road
I find greed and anger all wane
but fresh realization rises
leading me to a new insight

Rather than living life the easy way
that brings nothing but empty hands
I like a good life with ups and downs
living on the winding path

■ Kwon Kyung-ho

Made literary debut through *The Korea Literary Period*. Member of Daejeon Literary Association United, Advisory member of Poetry&Life Literature Association, English teacher in Daejeon for 25 years, Published poetry book *There I am*.

구재기

텅 빈 곳에서는
 모든 것이 일정하지 않아서
 안도 아니요 바깥도 아니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한 빛도 아니요
 여러 빛도 아니다
 메아리가 이를 곳을 잃었다
 인연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지만
 뒤바뀐 생각을 멀리 떠나
 일체를 버리고 나서
 비로소 홀로 설 수 있는 것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세상의 흐름을 따르다가
 마침내 이루어놓은 이 깊은 가을
 몸과 뜻이 완전한 세상에
 셋빨간 등불 하나
 또렷하게 밝혀 놓는다
 빈 곳 가득 채워 놓는다.

구재기

1978년 『현대시학』으로 등단, 시집 『모시를 사이로 바람이』(2018.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작품집), 등 20여 권과 시
 선집 『구름은 무게를 버리며 간다』 등, 수필집 『들꽃과 잡초 사이, 사람
 이 산다』, 평론집 『절정(絶頂), 그 광야(曠野)의 외침』, 충남도문화상, 시
 예술상본상, 충남시협본상, 한국문학상 등 수상, 현 (사)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Koo Jai-ki / Trans. Kim In-young

In an empty space
Nothing is orderly
Neither exists inside nor outside
Neither can be called being nor not being
Nothing is either in one color
Or in multiple colors
Echo is lost and can be found no more
Everything is said to have its own destiny,
But after getting away from the ideas placed upside down
Abandoning all of them reversed
Finally then everything can stand by its own right
In the blowing wind
Following the currents of the world
At last arriving in the deep autumn here and now
At this world in completion of body and will
A red-ripe persimmon presents itself
Lighting up a lamplight
Glaring and filling the empty space to the full

■ Koo Jai-ki

Made literary debut through *Modern Poetry*(1978). Vice-president of the Korean Literature Association, Published 20 poetry books, including *Breezy from Mosiols*(2018) and many more. The essay collection includes *Between Wildflowers and Weeds*, *People Live* and the review collection includes *The Peak*, *the Cry of the Wild*. He received the Chungnam Culture Award, the Korean Literature Award.

감꽃 이야기

강정화

까까머리 소년이 건네준 감꽃
 “니는 감꽃보다 더 예쁘데이”
 그 한마디 장롱 속 깊이 숨겨 놓았지
 세월가도 바스러지지 않은 채
 해마다 감꽃 필 때 감나무 아래서
 허허로운 마음 달래네
 외로울 때 감꽃 살짝 꺼내 공기놀이하며
 혼자 그 말 떠올리며 미소 짓네
 사춘기 소녀 적에도
 주렁주렁 감꽃 목걸이 하고
 꽃구름 속으로 그네 뛰듯
 하늘을 나르는 듯 하였지
 봄마다 아름다운 감꽃 떨어지며
 푸른 감나무 아래 서성이며
 유년의 무지개다리 넘어 본다네

강정화

1984년 월간 『시문학』 등단,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바람도 어둡도』, 『나무로 다시 태어나기』, 『대낮의 허깨비』



Kang Chun-hwa / Trans. Kim In-young

Shyly saying “you are prettier than persimmon flowers”
a boy with the buzz cut handed over to me the flowers
and I have kept those words deep in the wardrobe
that became dry in time but still remain intact
soothing my lonesome mind under a persimmon tree
when the flowers bloom every year
Playing the game of five stones while feeling lonely
I used to recall those words and found myself smiling
alone
As a girl going through puberty
I liked to wear the necklace made with persimmon
flowers
feeling myself so excited, as if riding high on a swing,
flying into the sky with flowery clouds
Every spring at the time persimmon flowers fall
I stroll under the tree all green
trying to go over the rainbow bridge of the youth

■ Kang Chun-hwa

She made her literary debut in 1984 through a monthly magazine *Simunhak*. She is the president of poetry division of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She has published *Wind and Darkness*, *Born again as a Tree*, *Ghost in Daylight*, etc.

은자^{*}의 노래

강에리

나무는 가만히 있어도
바람에 흔들리고
새는 강과 멀리 있어도
비에 젖는구나

그림은 말을 못 하는데
백 가지 주석이 달리고
구름같이 떠도는 말을 통해
사람들은 세상을 보네

사람을 통해서 듣고 본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데
그대는 얼마의 세월이 필요한지요

혹시 그대는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기 위해
허공에 흩어지는 말들을
믿고 싶은 것은 아닌지요

* 은자(隱者): 산야에 묻혀 숨어 사는 사람.
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숨어 사는 사람.

강에리

시인, 소설가, 작사가, 한국국보문인협회, 시집 『단 하나의 꿈, 제19회 황진이문학상, 가곡 「빛물의 연서」



Kang Elly / Trans. Kim In-young

Trees standing still
sway in the wind;
birds staying far away from the rivers
get soaked in rain

Paintings incapable of speaking for themselves
get hundreds of different annotations;
people see the world
through the words floating like the clouds

How long would it take until you realize
the things you saw and heard from other people
are not everything there for you to know?

Perhaps, I wonder
if you just want to believe those words
drifting and dispersing in the air
to hide your faltering mind


■ Kang Elly

Poet, novelist and lyricist, Member of Gukbo Writers Association, The Korean Writers Association, The Korean Novelist Association, Korea Modern Poets Association, Published poetry book, *The Only One Dream*, and Lyric song, *Love Letter in Rain*, and many more. Awarded the 19th Hwangjini literature prize.

Poetry Korea Volume 18 · Winter · 2024

Semiannual Anthology by **96** Poets of Korea

Edited by UPLI Korea Center



Poetry Korea 번역팀

김인영

Colorado Univ. BA, Pittsburg Univ. MA

서강대 영문학 박사. 현재 Poetry Korea 사무총장

우형숙

시조시인, 번역가, 영문학 박사, 국제PEN한국본부 번역위원장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번역팀장

정미선

번역가, 영문학박사, 영동대교수(역)

국제PEN한국본부 번역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번역위원

김석훈

번역가, 언어학박사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Poetry Korea 번역위원

조미나

시인, 번역가, 영문학박사

캐나다 토론토 거주, Poetry Korea 번역위원

Volume · 18 _ Winter 2024

Poetry Korea 포에트리코리아

발행처 국제계관시인연합한국본부 UPLI-KC

발행인 전병기 (전 민)

편집인 김인영

주 간 신경희

편집국장 김태웅

번역위원 김인영 김석훈 우형숙 정미선 조미나

지문위원 김명수 김명아 김용옥 김철기 노금선

박재화 장건섭 정근옥 최재문 허진숙

편집위원 노수승 문철호 백혜옥 임형선 하희경

펴낸날 2024년 12월 11일

펴낸곳 기획출판 오름

등록번호 _ 동구 제 364-1999-000006호

등록일자 _ 1999년 2월 25일

주소 _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15번길 125 2층

전화 _ 042-637-1486

e-mail : orumplus@hanmail.net

ISSN _ 2733-8673

값 13,000원 (\$10)



국제PEN한국본부

창립70주년기념 시인선 24

모든 색깔의 어머니

노수승 시집

노수승 시인의 세 번째 시집 『모든 색깔의 어머니』는 단정하다. 전작 시집 『스노우볼』에 비추어 형태적 측면에서 비교적 산문시 경향이 강했던 형식적 특성이 약화하고 응축된 이미지 연쇄에 의한 간결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번 시집의 시편들은 일정한 정형성의 운율과 상징적 언어의 간결한 조형적 회화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표현상의 형태적 특성은 사물이나 현상의 정수를 꿰뚫고, 그 사물의 양상이나 본질을 발견해 싱싱하게 드러내려는 태도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보인다.

— 김홍진 / 해설 「발견의 감각과 생기의 정신」 중에서



노수승

노수승은 공주에서 태어났다. 고교 시절 석련문학회에서 활동, 2009년 무천문학동인으로, 2011년 『문학시대』로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그 후 한남대 대학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시집 『놀리면 허허 웃고 마는 사람』, 『스노우볼』에 이어 세 번째 시집 『모든 색깔의 어머니』를 출간한다.



United Poets Laureate International
Korea Center



9 772733 867007

18

ISSN 2733-8673

값 13,000원 (\$10)